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심으로 달려갈 100년

## 제5편 교회 재건기

### 제 1 장 조국광복과 경산교회

제1절 광복의 감격

제2절 청년면려회 재건

제3절 사회와 교계의 혼란

### 제 2 장 오태환목사 목회와 화강석 예배당 신축

제1절 오태환목사 부임과 이력

제2절 일반목회

제3절 화강석 예배당 신축

제4절 6. 25와 경산교회

### 제 3 장 김삼대목사 목회

제1절 김삼대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제2절 김삼대목사 목회



## 제 5 편 교회 재건기

이제부터 경산교회 제3호 당회록 시대가 된다. 제3호 당회록은 1946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제157회 당회부터 1954년 12월 29일 개최된 제230회 당회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별한 일로는 국가적으로는 광복 후 혼란한 정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정부가 기반을 잡기도 전에 6.25의 국란이 일어나고 그 후 휴전하게 된다. 교회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화강석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다. 1939년부터의 숙원사업이었다. 새 예배당을 완성하고 감격의 감사예배를 드렸다.

### 제 1 장 조국광복과 경산교회

#### 제1절 광복의 감격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와 만주, 중국을 점령하고 마침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패권을 한손에 쥐고자 했던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혹은 도처에서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어 주신 줄로 믿는다.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이 되었다. 특히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였던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산교회 제2호 당회록 65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평화회복,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참담한 전쟁은 종식되어 평화 되었다.」

경산교회에서는 남녀노소 온 교인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애국가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과 ‘조선의 노래’ 등을 부르며 독립만세

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하였다. 경산역 앞 광장에서 만세삼창을 힘차게 부르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감격

또한 제2호 당회록 65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건국축하 예배식 거행, 1945년 9월 2일 오전 11시 건국축하 예배식을 거행하다.」

상기 기록과 같이 온 교인이 건국축하예배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힘차게 부르면서 조국의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또한, 194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축하 부흥사경회를 개최하여 해방의 감격을 되새기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제2호 당회록 65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건국축하 부흥사경회 개최, 1945년 9월 25일부터 동 30일까지 독립기념 부흥사경회 개최하다.」

정부를 수립하기 전을 건국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아쉬운 점은 부흥강사의 이름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해(1945년) 12월 2일 오전 11시 해방의 기쁨과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sup>63</sup>

이명석 목사는 상기 기록과 같이 일제의 극심한 탄압시기를 넘기고 해방의 감격 또한 동시에 누리기도 했다. 해방 후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마치고 1946년 1월 26일 제150회 당회의 사회를 끝으로, 1946년 3월 3일 제185회 정기제직회 사회를 끝으로 경산교회를 떠났다.

## 제2절 청년면려회 재건

광복의 벅찬 감격이 가시지 않은 9월 2일 오후 6시에 경산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가 소집되었다. 경산교회 청년회가 1927년 12월 24일에 개최한 당회록(회장 김용규 목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63 경산교회 당회록 제2호, 1945, 65.

「성탄축하 성극을 본 교회 청년회에 맡기여 하되 당회가 먼저 간단히 예배를 드린 후에 하기로 가결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1927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청년회에 대한 기사를 간간히 볼 수 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전쟁 시에는 조직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모든 면에 재건의 물결이 일어났다.

드디어 9월 2일, 사실은 재건총회이지만 창립총회라는 이름으로 오후 6시에 소집되어 임시회장 정태영 집사의 사회로 찬송가 89장을 부른 후 ‘조선의 노래’를 우렁차게 불렀다. 필자도 함께 참석한 총회는 실로 감격의 순간이었다.

전도서 11장 8절에서 12장 2절까지 봉독 후 김두환 집사의 기도로 개회하였다. 당시에 내빈으로 김무생 목사가 의자에 앉아있었다. 모두 마루에 앉아있을 때였다. 김무생 목사는 목사이면서 의사였다. 자생의원장 정남수와 함께 경산중학교를 설립하였다. 3. 1운동 때 대구지방 독립운동의 주역의 한사람으로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다. 특별히 내빈으로 왔던 것이다. 청년면려회의 회원자격은 만 15세부터 만 40세까지로 하고 단 회장은 60세까지 연장하였다. 첫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최재학
- 부 회 장 정태영
- 서 기 정중환
- 부 서 기 권중국
- 회 계 권중국
- 종교부장 김두환
- 지사부장 김덕룡
- 음악부장 서용학
- 체육부장 장천실
- 사회부장 백선기

고문에는 이명석 담임목사와 이종성 장로가 추대되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과 목요일 아침에는 근로봉사대를 조직하여 사회봉사를 하기로 결의하여 빗자루를 들고 경산시내 도로를 청소하는 사회봉사를 하였다.

이상으로 경산교회 제2호 당회록 시대는 마감된다. 1932년 6월 5일 제 68회(라이온 동사목사)부터 1946년 12월 22일 제157회(회장 양찬언 목사)까지 이다. 제2호 당회록에는 통상적인 기록 외에 특별한 내용을 별도 제목과 내용으로 간단명료하게 기록해 두어 후세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제목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목사 위임식’ ‘세례성찬식 거행’ ‘제직취임식 거행’ ‘장로장립식 거행’ ‘성찬식 거행’ ‘구역제 실시’ ‘성전신축기성회 창립’ ‘창립 기념일’ ‘감사절’ ‘권찰의 명심할 사항’ ‘평화회복’ ‘건국축하 예배식 거행’ ‘감사절 축하예배’ 그리고 권징이 엄격함을 볼 수 있다.



현태용 목사

이명석 목사가 떠난 후 사월교회에서 시무하는 양찬언 목사가 초빙되어 임시당회장을 맡아 당회를 회집하였다. 제2호 당회록 끝부분, 제155회 부터 제157회 당회까지 양찬언 목사가 회장으로 되어있다.

1946년 6월 30일에 개최된 제155회 당회 시 현대용 목사청빙에 대하여 7월 둘째주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 성수가 되면 임시목사로 청빙하기로 가결하였다. 그 후에 현대용 목사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현대용 목사는 그 후 주일 낮 설교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1946년 7월 21일 개최한 제195회 임시제직회와 1946년 8월 4일에 개최한 제196회 정기제직회를 사회하였다.

### 제3절 사회와 교계의 혼란

8. 15광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억압당했던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일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바 있다. 그만큼 해방의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컸다.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오고 김일성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한교회에 대한 박해는 주일에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역자가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연행과 사형 등으로 거의가 순교하기에 이르렀다. 6. 25전쟁이 일어날 무렵에는 지상교회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북한교회와 평양신학교가 재건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적 그리고 민족적 숙원이었다.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야했다. 한편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옴으로 신앙의 자유는 완전히 누렸다. 해방당시 우리사회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일체감으로 움직였다. 망명생활에서 귀국한 민족의 거두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 심지어 국회의 개원도 기독교 장로인 초대국회의장 이승만이 이윤영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개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UN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자유를 만끽하였다. 그럼에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교단이 나누어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던 목사와 그렇지 아니한 목사가 분열되고, 신학교가 분리되고, 지역적으로 분립되고, 보수와 진보가 분열되고, 교파가 분열되고, 사회에서 좌우가 분열되고,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교단도 분열되었다. 고신, 통합, 기장, 합동 등 걸잡을 수 없이 분열되고 교회는 이합집산의 양상이 되었다. 가장 큰 시초의 원인은 신사참배문제였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사회는 자유가 방종으로, 물질만능으로 변질되었고 이러한 풍조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얼마 후에 6. 25의 참상이 이 나라에 닥쳤다.

## 제 2 장 오태환목사 목회와 화강석예배당 신축

### 제1절 오태환목사 부임과 이력



오태환 목사

오태환 목사는 1947년 2월에 제7대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47년 2월 16일에 부임한 후 첫 당회를 소집하였고, 1947년 2월 2일에 소집된 제직회시는 부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1947년 2월 3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환 목사가 경산교회에 부임할 때는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는 경산교회에 광복 후 처음으로 부임한 목사로서 석조예배당을 새로이 건축하게 된다. 투철한 믿음과 젊음의 박력을 필요로 하는 때에 오태환 목사의 부임은 하나님의 섭리라 할 것이다.

오태환 목사는 1916년 6월 1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동에서 영수인 아버지와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사이에서 딸을 넷이나 낳고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받던 중 오태환 목사를 낳았다. 오태환 목사가 9세 때 어머니는 중병으로 신음 중 “너는 장래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에 따라 목사가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난해서 중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4년 동안 아버지와 같이 팥이를 들고 보리밭을 매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큰누나(오천복)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가게 되어 학비를 위해 신문배달을 해가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동경신학대학에 입학하였다. 6년간 고학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게 되며(김운송) 함북노회에서 1943년 5월 20일 목사안수를 받고 함북연사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8. 15해방이 되어 서울로, 다시 대구로 와서 시무하게 되었다.



1947년 경산교회 제7대 위임목사로 부임, 그 후 1951년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대구한남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원을 수학하고 귀국하여 한남신학교 교장으로, 수석교회 목사로, 그 후 부산신학교 교수로 학감으로, 1974년 부터는 부산 금강교회 목사로 있다가 1996년 금강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경성대학교 교수 및 교목, 부산신학교 3대 학장으로 시무하고 1993년 8월 78세로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로 있었다. 정부로부터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독립유공자 가족)을 받기도 하였다.<sup>64</sup> 오태환 목사는 2003년 12월 21일(주)에 별세하였다.

다음은 오태환 목사의 저서와 역서이다.

<저 서>

새 철학개론	1983. 2	서울 삼아사
철학개론	1985. 2. 10	부산산업대학교 출판부
종교와 철학	1996. 6. 20	경성대학교 출판부
교회와 국가	1996. 11. 30	경성대학교 출판부
기독교의 뿌리	1997. 5. 5	경성대학교 출판부
신학 변천사	1997. 8. 5	경성대학교 출판부
현대 신학자들	1998. 6. 15	경성대학교 출판부
종말론 신앙과 선교론	2000. 7. 10	경성대학교 출판부

<역 서>

- 정신분석 입문 (S.프로이트 저, 1986. 12. 5, 부산 선영사)
- 신념의 마력 (C.M.브리스톨 저, 1987. 3. 1, 부산 선영사)
- 프로이트 심리학 비판 (H.마크제/E.프롬, 1987. 8. 20, 부산 선영사)

64 오태환, 『종교와 철학』경성대학교 출판부,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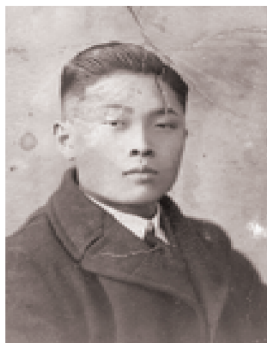
## 제2절 일반목회

### 1. 교역자 동정

김순덕 전도부인이 1946년 12월에 부임하여 1948년 3월 까지 시무하였다. 1949년 12월에는 박복원 여전도사가 부임하여 1950년 11월 19일 까지 시무하였다. 1951년 2월에 허영희 여전도사가 부임하였으며, 1951년 5월 13일에는 서울에서 피난 온 김영희를 여전도사로 청빙하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여전도사로 사역한 경우는 처음인 듯하다. 허영희 여전도사는 1952년 6월 15일에 사임하였다.

### 2. 당회동정

오태환 목사는 1947년 부임하자마자 새 예배당 신축이라는 거대한 일에 착수하여 1950년 완공할 때까지 이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 중 두 분의 장로 장립식이 있었다. 1947년 3월 첫 주일 공동의회에서 정태영, 서용학 집사를 장로로 선출하여<sup>65</sup> 1948년 5월 15일에 장립식을 거행하였다. 교회에서는 성경 한 권씩을 증정하였다.<sup>66</sup>



정태영 장로



서용학 장로

65 경산교회 당회, “제158회 당회록” (1947. 2. 16).

66 경산교회 제직회, “제262회 제직회록” (1948. 2. 1), 경산교회 당회, “제64회 당회록” (1948. 5. 21).

또한 1950년 11월 26일 주일에는 김두환 장로장립식이 거행되었다.<sup>67</sup> 경산교회에서는 유기를 증정하였다.<sup>68</sup> 김두환 장로는 1941년 12월 27일 송산교회에서 경산교회로 이명 왔다.<sup>69</sup>



김두환 장로



김두환 장로장립식 기념(1954. 2. 28)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오태환 담임목사, 여섯 번째가 김두환 장로)

### 3. 학생회 조직

1948년 6월 20일 주일오후 3시 경산교회 첫 학생회가 조직되었다. 당시만 해도 중, 고, 대학생의 수는 교회에 많지 않았었다. 장차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역군들이 신앙으로 뭉쳐 신앙운동과 복음전파, 친교를 목적으로 남녀학생들이 학생회를 조직하였다. 발기위원은 이창우(후에 장로, 영

67 경산교회 당회, “제117회 당회록” (1950. 10. 29).

68 경산교회 제직회, “제261회 제직회록” (1950. 11. 5).

69 경산교회 당회, “제126회 당회록” (1953. 11. 15).

남대 부총장), 정주경(후에 목사), 엄재권(후에 부산 성산교회 장로)이었고 회칙기초는 정주경이 담당하였다. 창립총회가 1948년 6월 20일 이창우의 사회로 진행되어 회칙통과에 이어 초대회장으로 박종길(후에 장로, 의사)이 선출되었다. 이로서 역사적인 경산교회 학생회 창립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학생회 조직 후 헌신예배, 회지발간, 친목, 전도,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새 예배당 신축 후 예배당 주위에 미화를 위해 당시 청년들이 히말라야, 향나무 등을 심어둔 것을 대구로 기차통학 하던 학생들이 경산역에 내려 바로 교회로 와서 물을 주고 가꾸어서 오늘의 큰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정면 출입문 양쪽에 서있던 큰 히말라야시더는 베어버려 매우 아쉽기도 하다.

#### 4. 임당교회의 분립

교회가 점점 부흥함과 동시에 경산시 임당동에 거주하는 교인들이 먼 거리로 인하여 곤란을 겪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때여서 먼 거리를 도보로 교회까지 오는데 날씨가 좋지 못할 때는 비포장도로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임당교회를 세우기로 자연스럽게 뜻이 모아졌다. 1950년 12월 첫 주일 이도봉(후에 목사)가정 사랑채에서 약 40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임당교회가 설립되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압량면 부적동에 있는 부적교회(현재 은혜로교회) 일부 교인들도 합류하였다. 얼마동안 경산교회 주일학교 유년부에서 서영복(우리사진관), 정주경 학생을 파송하여 어린이 예배를 지도하며 후원하였다. 경산교회에서는 1955년 5월 넷째 주일에 특별헌금을 하여 임당교회설립을 도왔다.<sup>70</sup>



임당교회(현재 한우리교회)

70 경산교회 제직회, “제308회 정기제직회록” (1955. 5. 1).

임당교회는 자연스럽게 설립되게 되었으며 경산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깊이 개입하지는 않은 듯 하다. 임당교회는 2006년에 경산동광교회와 합병하여 동년 6월 20일부터 한우리 교회로 교회이름을 개칭하였다.

### 5. 부흥회 개최현황

오태환 목사 목회 시 부흥회 개최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일 시	강 사	비 고
1947.2.16~2.23 사이	?	하당(下堂)신건축 예산금액 5만원 목표로 하고 사경회 최종일에 별 연보하기로 가결 제207회 제직회록 (1947. 2. 16) 제208회 제직회록 (1947. 2. 23)
1947. 11	함석헌 선생	제219회 제직회 임시회록 (1947. 11. 6) 사례 사과 1상자 1,000원
1948.1.22~1.28	박재봉 목사	
1949. 1. 30~2. 3	함석헌 선생	제241회 제직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49. 2. 2) 사례금 5,000원
1949.9.19~1주간	강준의 목사	제24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49. 9. 18)
1950. 1. 23~	?	제253회 제3차 임시제직회록 (1950. 1. 20) 사례금 2만원 제253회 제5차 임시제직회록 (1950. 1. 29)
1951.2.13~2.19	이대영 목사	제262회 제1차 제직회록 (1950. 12. 3) 제264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1. 2. 11) 사례금 5만원 제264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 6. 연합집회

예배당이 이 지방에서는 드물게 석조 건물로 건축된 후 1951년 7월 10일 부터 7월 15일까지 경북 교역자 연합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강사는 이대영 목사, 감부열 선교사, 명신흥 목사이다.<sup>71</sup> 경산교회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접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부서를 정하였다.

총지휘 및 감독 : 오태환 목사

서 기 : 한시영 집사, 백선기 집사

회 계 : 안건수 집사, 김두환 장로

식사부 책임자 : 최재학 장로, 서용학 장로

접대부 책임자 : 이종성 장로 외 당회원 전원, 두 여전도사

보급부 책임자 : 정혜진 집사 외 5인

청소부 책임자 : 정중환 집사, 김태은 외 5인

경산교회에서  
는 환영하는 뜻  
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1매씩  
무료로 증정기로  
하였다.<sup>72</sup>



경북 교역자 연합 부흥회 (1951. 7. 10~15)

71 경북노회, “경북노회록” 제2권, 635.

72 경산교회 제직회, “제26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1. 7. 3).

## 7. 상여메기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청년회원들이 상가에서 유족과 함께 철야로 위로도 하고 청년회에서 준비한 별세를 알리는 상가용 등을 달고 교회용 상여를 준비하여 청년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일제히 상여를 메었다.

찬송가 선창에 따라 찬송을 부르며 교회묘지(경북 경산시 평산동 산 17)로 가는데 상당히 고생이 되었으나 모두가 기쁨으로 봉사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수고는 성도의 일체감과 교제를 두텁게 하였다. 오대환 목사 시대 무렵부터 이 만천 목사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오늘날에는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 8. 기 타

### ① 이재민을 돌봄

해방 후 어수선한 시국에 만주지방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는 이재민 교인들이 있었다. 경산교회에서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기 위해서 연보하여 돌보는 모습도 보였다.<sup>73</sup>

### ② 성탄절 새벽송

또한 성탄절 새벽에는 제직들과 성도들이 새벽 1시 30분경에 교회에 모여 몇 대로 조직하여 대장을 뽑아 기도를 드린 후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집집마다 방문하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구주 나신 날 목자영광 불 때에’ ‘그 어린 주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들밖에 한밤중에’ 등등 성탄 찬송가를 합창하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만방에 알려 축하하였다. 때로는 흑한에다 눈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눈이 녹아 양말이 젖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큰 화로에 몸을 녹이기도 하였다. 새벽송 도중에는 몇 곳에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는데 사정동 서용학 장로댁과 삼북동 영신 철

73 경산교회 당회, “제164회 당회록” (1948. 5. 21), 경산교회 제직회, “제241회 제직회록” (1948. 12. 29).



공소 정원서 장로댁에서는 매년 성탄절 새벽마다 떡국을 끓여 대접해 추위를 녹였다. 밤중에 은은히 들려오는 찬송소리는 천사의 노래 같았다. 오대환 목사는 빠짐없이 함께 다녔다. 집집마다 등을 준비하여 성탄을 축하하고 교인집인 것을 표시하였다. 대원들이 찬송을 마치면 준비한 예물이나 헌금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지금은 아련한 농경사회의 성탄절 추억이다.

### ③ 첫 피아노

경산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와 온 교인이 매우 기뻐하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피아노를 부득이 반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피아노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당시 찬양대 총무를 맡아 헌신적으로 수고한 엄재권 장로의 회고담을 기록한다. 엄재권 장로는 첫 피아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팩스를 2009년 1월 18일에 보내왔으나 같은 해 3월 13일에 별세하였다.

「1951년 6월 어느 날 정원모 성도(후에 집사)가 일본제 야마하 검정색 피아노 한 대를 경산교회에 기증하였다. 중고이지만 깨끗한 편이고 흠이라면 뒷면에 총탄 구멍으로 추정되는 구멍 두 개가 있는 것뿐이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피아노 생산이 되지 않을 때라 시골교회에서 피아노를 비치하기는 생각조차 못하였고 피아노 거래는 주로 미국에서 쓰다버린 피아노를 수입해서 팔고 있었기에 일본제 야마하 피아노라면 아주 귀하고 음악인이 선호하는 제품이었다. 피아노가 생긴 경산교회 찬양대는 너무나 기뻐했고 찬양대가 날로 성장하여 그해 가을 경산극장을 빌려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물론 피아노도 극장에 같이 가게 되었다.

1952년 봄(?) 어느 주일 저녁 특별찬양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시간 전에 찬양연습을 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헌병 몇 명이 군용트럭을 몰고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압수하러 왔다는 것이다. 헌병이 말하는 압수이유는 어떤 사건으로 구속된 장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추궁한 결과 6. 25사변으로 피난가고 없는 빈집에 있던 피아노를 훔쳐 피아노상에게 팔아넘긴 장물로 압수하여 가져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피아노를 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에 피아노를 가져 가면 찬양예배반주도 할 수 없게 되니 저녁 찬양예배가 끝날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



렸다가 가져가도록 양해를 얻어 그렇게도 좋아했던 피아노 송별예배 같은 찬양예배를 드리고 피아노를 잃게 되었다. 하는 수없이 경산교회에서는 미제 고물 피아노를 대구 피아노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후 오태환 목사가 1951년 9월 5일 사임하고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목사가 교인 집에 심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서 피아노 반주로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예배 후 오목사님이 그 피아노가 눈에 너무나 익은 피아노 같아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총구멍 두 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건 경산교회에 있었던 피아노가 틀림없었다. 오목사님이 이 피아노를 갖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이 집 남편이 군 수사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군인 절도사건의 장물로 본래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시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목사님의 도움으로 현재로서는 선의의 취득자인 경산교회가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니 일단 돌려주자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몇 달 후 피아노를 돌려받았고 결국 교회는 피아노 두 대가 되고 말았다. 온 교회가 다시 경사를 맞게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되었다.

2009년 1월 18일 엄재권 장로

부산 남천동 성산교회」



정원모씨 피아노 기증 기념 (1951. 6. 25)

#### ④ 군경 위안 음악회

청년회 주최로 군경 위안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6.25 전쟁이 치열한 와중에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군인과 후방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1951년 9월에 개최한 것으로 짐작되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교회에서는 음악회 경비 부족금 65,000원을 보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74</sup> 오태환 목사가 떠난 후 김삼대 목사가 부임하기 전이었다.

오태환 목사는 1951년 8월 23일 제270회 제1차 임시당회에서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고 사임하였다. 교회에서는 8월 30일 밤에 송별회를 열었다. 해방 후 혼란가운데서도 교회를 정비, 재건하고 화강석으로 된 예배당을 건축하고 경산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다. 많은 교인들이 나와 전송하였고, 여성도들은 눈물을 닦으며 우는 모습이 많았다. 오태환 목사가 떠난 후 임시당회장으로 김병호 목사(압량제일교회 당회장, 현재의 은혜로 교회)가 맡아 수고하였다.

### 제3절 화강석예배당 건축

#### 1. 석조예배당이 건축되기까지

새 예배당을 신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경산교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경산교회 새 예배당 신축에 대한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경산교회가 새 예배당에 대한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제직회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1936년 1월 5일에 개최된 제57회 제직회록(회장 윤영문 목사)을 보면 예배당 신축기지 연구원을 선발하고 제80회 제직회록, 제104회 제3차 임

<sup>74</sup> 경산교회 제직회, “제271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1. 9. 30).

시제직회록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다. 제112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39. 10. 15, 회장 양재엽 목사)에서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하고<sup>75</sup> 1941년 1월에 석재를 구입하였다. 마산에 있는 석재를 경산역까지 기차로 운반하여 역창고에서 경산교회까지 운반된 것을 청년들이 소달구지에 싣고 교회마당까지 운반하였다. 그러나 교회당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일제의 압박과 시국의 어려움으로 이루지 못하였다.

1941년 2월 2일에 개최된 제136회 제직회(회장 이상업 목사)에서도 또다시 예배당 신축을 결의 하였다. 그리고 석재 예배당을 시찰하기도 하였다.<sup>76</sup> 제145회 당회(회장 이명석 목사, 1944. 7. 4) 회의록에 의하면 전교인이 회원이 되어 성전 신축을 위하여 기성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태평양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일제의 핍박이 날로 심해오는 때여서 이루지 못하다가 1947년 2월 젊은 오태환 목사가 부임하여 부임한 바로 그해부터 예배당신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1947년 11월 24일에 열린 제220회 임시제직회록(회장 오태환 목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성전신축 목표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 2. 석조예배당 건축의 진통

경산교회의 오랜 숙원인 예배당 신축을 시작함에 있어 먼저 1948년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영계 권위자로 알려진 박재봉 목사



강사 박재봉 목사 송별기념(1948. 1. 29, 경산역에서)

74 경산교회 제직회, “제135회 제직회록”(1941. 1. 5).

76 경산교회 제직회, “제136회, 제152회 제직회록”.

를 강사로 하여 많은 교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 떠나는 날은 추운 겨울날씨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경산역까지 나와서 전송하였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부흥회에서 오태환 목사로부터 예배당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축헌금을 하게 되어 많은 건축헌금이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2월 1일에 열린 제226회 제직회에서 예배당신축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위원은 정원서 장로, 최재학 장로, 이종성 장로, 서용학 장로, 김두환 집사, 정해진 집사, 건축회계에 정원서 장로, 문부서기(문서회계)에 서용학 집사, 감사위원회에 최재학 장로, 강영명 장로로 정하였다. 그 후 1948년 6월 20일에 개최된 제234회 임시제직회에서 건축위원을 증원키로 하고 한명수 장로를 선출하여 보강하였다.<sup>77</sup> 이리하여 오랜 숙원인 경산교회 예배당 신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그 후 중방동에 거주하는 제직들이 중방동이 경산의 중앙이라 하여 분리하여 건축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삼북동 이남의 제직들은 삼북동 본 장소에 건축하자고 주장하여 심각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1948년 2월 29일에 개최된 제227회 임시제직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기에 이른다.

1. 예배당 건축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토의한 결과 10 대 5로 중방동으로 분립하기로 거수로 가결하다.
2. 전 건축위원들은 취소키로 가결하다.

1948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229회 임시제직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분리지역을 경산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서로 정하고 삼북동 교회는 갑제동, 삼풍동, 평산동, 백천동, 사동으로 정하고 중방동 분리교회는 임당, 계양, 옥곡1, 2구로 정하여 교인의 입교는 자유로 하기로 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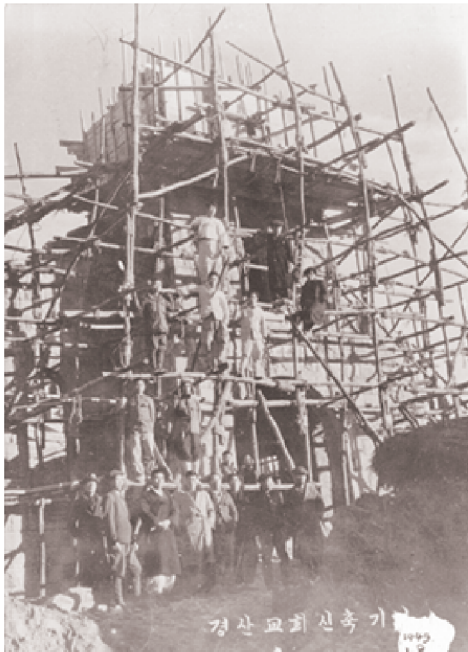
<sup>77</sup> 경산교회 제직회, “제234회 임시제직회록”(1948. 6. 20).

오태환 목사는 교회가 분리하여 건축하지 않고 통일하여 건축하도록 무단히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구두로 사의를 표명하여 서울에 있는 연희대학(현재 연세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취임하려 하였다. 당시 총장 백낙준 박사의 초청으로 연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정태영 장로가 동행하였다. 돌아와서 다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통일이냐 분리냐 ‘통’은 삼북동 현 위치에 건축하는 것이고 ‘분’은 중방동에 건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중방동측에서는 중방동이라도 통일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방동을 ‘분’이라 함은 편파적이라 하여 공동의회(교도대회)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오태환 목사는 통일하여 삼북동에 건축하게 되면 사표를 철회하겠다고 양보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방동에 거주하는 안건수 집사(후에 경산교회 장로)는 통일하여 삼북동 현 위치에 건축하는 것을 찬성했고 역시 중방동에 거주하는 정해진 집사는 중립적인 입장 혹은 삼북동 입장이었고 삼북동에 거주하는 안상기 장로는 분리를 주장하였다. 그 후 중방동 거주 제직들이 처음의 열성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후보지 물색이 여의치 않으며 경제적 문제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인데다 여기에 오태환 목사의 통일하여 삼북동 현 위치에 건축하도록 비상한 노력으로 드디어 제232회 임시제직회(회장 오태환 목사)가 1948년 5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7시 까지 개최되어 전회의 교회 분립 결의 건을 취소하고 재론키로 가결하고 쌍방의 의사를 신중히 교환한 후 본 예배당 기지에서 합동 건축하기로 의견이 합치되어 한명수 장로 동의와 이종성 장로 재청으로 가결하였다. 기타 건축에 관한 건은 위원들에게 일임키로 가결하고 이종성 장로 기도로 폐회함으로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드디어 삼북동 현 위치에 통일해서 새 예배당 건축을 하기로 한 것이다.

### 3. 석조에배당 건축

많은 파란곡절을 겪고 교회신축은 드디어 350만원으로 청부업자에게 계약기로 하였다.<sup>78</sup> 청부업자는 건축가 황하룡씨로 결정되었다. 교회신축감독은 진기원씨를 선출하였다. 예배당 건축방향은 서향으로 세우기로 제직회에서 가결하였다.<sup>79</sup>

1948년 7월 1일에 구 예배당 건물은 헐고 새 예배당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예배당 신축공사 정초식은 1948년 8월 14일 오후 2시에 거행되었다<sup>80</sup>. 이리하여 기초공사가 시작되고 장차 2층을 지을 수 있도록 매우견고하게 이루어졌다. 비계가 세워지고 무거운 화강석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올리어져 갔다. 실로 감격의 순간이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여섯 차례의 헌금과 금반지 등 교인들은 열성적으로 교회 신축을 위하여 헌금과 헌물을 바쳤다. 영신



경산교회 신축광경(1949. 1. 8)

철공소를 경영하는 정원서 장로가 수입이 되는 대로 수시헌금을 하였고 한명수 장로는 차남에게 유산으로 줄 5,000평 가까운 과수원(현재 경산 이마트 옆)을 예배당 건축비로 바쳤으니 지금의 헌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래도 건축비가 부족하여 외처 교회에 건축연보를 청하기도 하였다. 1948년 12월초 주일에 본시찰 지방교회에 파견하여 헌금보조를 신청하였다. 교회별 담당은 자인교회 이종성 장로, 사월교회 한명수 장

78 경산교회 제직회, “제233회 제직회록” (1948. 6. 6).

79 경산교회 제직회, “제236회 제직회록” (1948. 7. 4).

80 경산교회 제직회, “제238회 제직회록” (1948. 8. 1).

로, 안심교회 정원서 장로, 하양교회 최재학 장로, 부적교회(현재 은혜로 교회) 정태영 장로이었다.<sup>81</sup> 이어서 다음해(1949년) 다시 이종성, 정원서, 최재학 세분의 장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sup>82</sup>

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갈은 교회 청년들이 방천(현재 경북체육고 옆)에 가서 리어카로 운반해오기도 하고 여성도들은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오는 등 노력봉사를 많이 했다. 오태환 목사가 직접 건축재료와 시멘트를 구입하기 위해 부산까지 출장가기도 하였다.<sup>83</sup>

워낙 벽찬 공사가 되어 다시 1949년 2월에 대구로 장로를 보내어 건축연보 보조를 청하였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대구제일교회 이종성 장로, 남산교회 정원서 장로, 사월교회 최재학, 한명수 장로로 결정하였다.<sup>84</sup> 당시 돌아온 장로들의 보고에 의하면 기쁨으로 맞이해준 교회도 있었고 환영을 못 받고 냉대를 받은 교회도 있어서 우리는 외부교회에서 연보를 청해오면 기쁨으로 성의껏 보조하자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예배당 간판은 한글로 ‘경산 예배당’이라 조각기로 가결하고<sup>85</sup> 당시 경산중앙초등학교 국어 음악교사인 이종택 선생에게 의뢰하여 ‘경산 예배당’이라고 기록하고 정면 아치위에 간판을 붙였다. 조각비는 7천원을 지불하였다. 당시로서는 한글로 가로쓰기한 사실은 대단한 선각적인 발상이었다. 예배당 건축 감독은 윤번제로 하기로 하고 인원배정은 회장에게 일임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 1월 8일 정오에 예배당 건축 상량식을 거행하였다.<sup>86</sup> 마무리 공사로 예배당 창문은 정덕조 집사에게<sup>87</sup> 천정공사는 김광수 집사에게 맡기게 된다.<sup>88</sup> 또한 예배당 앞 초가집을 구입 정리하여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었

81 경산교회 제직회, “제241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48. 11. 28).

82 경산교회 제직회, “제241회 제직회록” (1949. 1. 2).

83 경산교회 제직회, “제241회 제1차 제직회록” (1948. 11. 21).

84 경산교회 제직회, “제241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49. 2. 2).

85 경산교회 제직회, “제239회 제직회록” (1948. 9. 5).

86 경산교회 제직회, “제241회 제3차 임시제직회록” (1948. 12. 29).

87 경산교회 제직회, “제250회 제직회록” (1949. 10. 12).

88 경산교회 제직회, “제252회 제직회록” (1949. 12. 4).

다. 아쉬운 것은 화강석이 모자라 정면 3층과 교회 건물 윗부분 두 줄은 인조 석으로 대신하였다. 정면은 아치형의 출입구로 하였다.

1950년 3월 5일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건축시작(1948년 7월 1일)이 된지 1년 8개월만이요 건축 기성회를 조직하고 화강석을 준비한지(1939년 10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매진한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의 결과였다. 헌당식 경비는 10만원 내외로 정하고 점심 도시락으로 하되 제반준비는 청년회에 일임하였다.<sup>89</sup>



경산교회 헌당식 기념(1950. 3. 5)

교회 신축 청부자와 세 사람에게 헌당식 당일에 기념품으로 유기 그릇을 증정하고 역대 본 교회 시무자에게 양말 2켢레씩을 선물하였다. 그리고 건축 장부 감사위원을 택하여 감사키로 했는데 최재학 장로와 김두환, 정중환 두 집사이었다.<sup>90</sup>

헌당식 회계보고는 다음과 같다.<sup>91</sup>

수입금	147,100원
지출금	147,100원
잔금	없음

헌당식에 각계 각처에서 내빈

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당시로서는 드문 화강석 예배당이어서 불신자들도 칭찬하며 소문이 자자하여 멀리 부산에서도 구경 오기도 하였다.

공사가 시작된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까지 예배당 신축 중의 임시 예

89 경산교회 제직회, “제253회 제2차 제직회록” (1950. 1. 20).

90 경산교회 제직회, “제253회 제5차 제직회록” (1950. 1. 29).

91 경산교회 제직회, “제254회 제직회록” (1950. 2. 5).



배 처소로는 중방동에 있는 정해진 집사 주택으로 결정하였다. 이 주택은 해방 전 일본인 주택으로 중간 칸막이를 떼면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한 독립 축성 국민회 사무실이기도 했다. 1948년 7월 4일 비오는 주일 처음으로 임시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리하여 헌당식까지 임시 예배처로 삼았다. 그 후 화장실을 건축키로 하고 설계위원을 서용학 안건수 정덕조로 정하였다.<sup>92</sup>

#### 제4절 6. 25와 경산교회

1950년 6월 25일 주일 경산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낮 예배 중이었다. 화장식으로 지어진 예배당 건축이 완료되어 헌당예배를 드린 것이 지난 1950년 3월 5일이었으니 3개월 20일 만이었다. 그때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마루에 앉아 오대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로 짐작된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오전 11시에 일제히 주일 낮예배를 드렸다. 이때 경산 경찰서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 당시에는 화재나 큰 홍수가 나거나 그 외 비상시에 경찰서 사이렌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서야 북한 공산군이 고요한 주일 새벽 오전 4시를 기해 일제히 불법 남침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해방 후 38선 부근에

는 끊임없이 이북 공산군의 도발이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UN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에도 공산군의 도전을 받아 왔었다. 그들



6. 25전쟁으로 인한 피난행렬

92 경산교회 제직회, “제255회 제직회록” (1950. 4. 2).

이 남침을 이날로 택한 것은 공산정권 나름대로 국내외 정세가 침공하는데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미군도 철수한 이후였고 미국이 설정한 태평양 방위권에서 대만과 한국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6. 25남침 전에 평화 위장 전술을 펴기도 하였다.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여 감행한 6. 25 기습으로 말미암아 무방비 상태의 한국은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당했다. 그리고 국군의 모든 방위선을 돌파하여 남진했다. 그러나 UN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군을 침략자로 결의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을 창설하고 UN군을 한국 전선에 투입키로 결의하였다. 한때는 경북의 일부와 경남일부 외에는 다 점령당했으나 한국군과 UN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하고 대반격을 시도했다. 미 공군의 B29의 대규모 폭격과 인천 상륙 작전 등으로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계속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두만강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0월 19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인해전술로 밀고 밀리는 공방이 계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결의로 3년간의 한국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남한 100만 명, 북한 300만 명의 인명 손실과 모든 시설물의 파괴 등 치명적인 손실을 남북한 모두에게 안겨주고 말았다.

경산교회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군인 또는 경찰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통일을 기원하였다. 피난민들은 교회 안팎에 짝 차 있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새로 건축한 교회에 교인이 짝 차도록 기도하며 소원했는데 피난 온 교인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경산교회에서는 예배당 안팎의 피난민을 돌보는 한편 경산교회 강희성 외 2인이 육군병원에 있었던바 교회 대표를 파송하기도 하고<sup>93</sup> 비상시를 맞아 수고하는 경산 경찰서에 위문금 1만원을 보내기도 하였으며<sup>94</sup> 서울서 피난 온 김봉익을 돕기 위하여 3만원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다.<sup>95</sup> 서울서 피난 온 강홍수 목사에게 제주도 가는 여비조로

93 경산교회 제직회. “제284회 정기제직회” (1952. 10. 5).

94 경산교회 제직회. “제262회 정기제직회” (1950. 12. 17).

95 경산교회 제직회. “제284회 정기제직회” (1952. 10).

2만원 지원키로 하고, 예배시 피난민 중에서 고무신 분실된 것을 교회에서 사 주기로 한 기록도 볼 수 있다.<sup>96</sup> 이렇듯 피난민들을 배려한 일면을 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 30가정이 자고 생활하기를 몇 개월 동안 계속하였다.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피난민들이 점차 귀환하였다.

이 전란으로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교회는 대부분 피해를 입었고, 손실을 입은 교회 수는 장로교가 152교회, 감리교가 84교회, 성결교가 27교회, 구세군 4교회 등이었다. 손양원 목사를 위시하여 수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역자들이 순교하였고 피랍되었다. 순교한 사람 중 남궁태, 송창근 등 저명한 신학자 목사들이 많았다.

<sup>96</sup> 경상교회 제직회, “제271회 정기제직회록” (1951. 9. 5).

## 제 3 장 김삼대 목사 목회

### 제1절 김삼대 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 1. 김삼대 목사 부임



김삼대 목사

오태환 목사 후임으로 대구 동신교회에서 시무하던 김삼대 목사가 1951년 10월 2일에 부임 하였다.<sup>97</sup> 김삼대 목사는 취임과 동시에 취임심방을 겸해서 추기대심방을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김삼대 목사는 1952년 2월 6일 수요일에 위임식을 거행하여<sup>98</sup> 경산교회 제8대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경산교회에서는 위임선물로 구두 한 켤레와 각 기관에서 물품을 증정기로 하였다. 그날 본 교회 전교인에게는 도시락을 대접하였다. 예식 순서 등 남아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위임식과 동시에 경산교회에서 10주년이상 근속한 장로를 표창기로 하고 기념품으로 유기 한 벌씩을 증정하였다.<sup>99</sup> 2월 6일 김삼대 목사 위임식날 근속 시무 표창 받은 장로는 다음과 같다.<sup>100</sup>

- 한명수 장로 26주년 근속 시무
- 이종성 장로 26주년 근속 시무
- 정원서 장로 17주년 근속 시무
- 안상기 장로 16주년 근속 시무

97 경산교회 제직회, “제271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1. 9. 15), 경산교회 제직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1. 9. 30).

98 경산교회 제직회, “제275회 제직회록” (1952. 1. 6).

99 경산교회 제직회, “제275회 제3차 임시제직회록” (1952. 1. 27).

100 경산교회 제직회, “제276회 제직회록” (1952. 2. 3).

김삼대 목사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1953년 12월 5일에 개최한 제217회 당회를 마지막으로 경산교회를 사임하고 1953년 12월 16일 경산교회를 떠났다. 대구서남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된다.

## 2. 윤철주 동사목사 부임



윤철주 동사목사

1952년 6월 2일 개최된 제198회 당회에서 윤철주 목사를 임시 동사목사로 청빙기로 결정하였다. 1952년 6월 6일 부임하였고, 설교의 능력이 있고 재임 중 1주간 ‘애락원’에서 개최되는 부흥회 강사로 초청 받기도 하였다. 2개월여의 짧은 기간을 시무하다 9월 17일 사임하고 1952년 9월 21일에 경산교회를 떠났다.



윤철주 동사목사 송별기념(찬양대와 함께) 1952. 9. 21



### 3. 부교역자 동정

#### ① 허영희 여전도사

그동안 시무해오던 허영희 여전도사에 대해서 당회와 제직회에 불복함으로 1952년 6월 15일부로 시무정지 하였다.<sup>101</sup>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 ② 김순풍 전도사

김순풍 전도사는 언제 부임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1951년경에 부임한 듯하다. 유년 주일학교 지도에 힘썼다. 경산교회의 남전도사로서는 세 번째 전도사였다. 김순풍 전도사는 이복이 고향이며 온유하고 유능한 전도사였다. 김순풍 전도사가 재임 중 신학교 졸업 기념으로 경산교회에서는 가운 1벌을 선물하기로 하고<sup>102</sup> 그 대금은 부활주일 헌금으로 충당기로 한 기록을 볼 수 있다.<sup>103</sup> 김순풍 전도사는 1952년 4월에 사임하였다.

#### ③ 주선애 여전도사

경산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유년주일학교 전임 전도사를 청빙기로 하고 인선은 담임목사에게 일임한 바<sup>104</sup> 1952년 12월 27일에 개최된 제208회 당회에서 주선애 전도사(여)를 청빙기로 하였다. 부임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주선애 전도사는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에 자질이 있어 교회 여전도사와 교육전도사 역할을 겸하였다.

1953년 3월 23일부터 1주간 주선애 전도사를 강사로 경산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부흥회를 개최하였다.<sup>105</sup> 주선애 전도사는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산교회 시무 중 대구대학(후에 영남대학교) 영문과를 다녔다. 주선애

101 경산교회 당회, “제199회 당회록” (1952. 6. 15).

102 경산교회 제직회, “제278회 제직회록” (1952. 4. 6).

103 경산교회 제직회, “제278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2. 4. 20).

104 경산교회 당회, “제185회 당회록” (1951. 10. 21).

105 경산교회 당회, “제209회 당회록” (1953. 3. 15).

106 경산교회 당회, “제213회 당회록” (1953. 6. 21).

전도사는 1953년 6월 21일에 경산교회를 사임하였다.<sup>106</sup> 후에 영남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뉴욕신학교에서 교육학을 마치고 뉴욕종합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후 퀸(Queen)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숭실대학교 조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은퇴 후 명예교수로 있다.

## 제2절 김삼대목사 목회

### 1. 주일학교의 재정비와 찬양대

종래의 주일학교는 장년부와 유년부로 분리되어 부장은 장로가 담당하였다. 1953년도 부장에 종래의 관습을 깨고 23세의 서리집사인 정주경을 임명하여 유년주일학교 쇄신의 계기로 삼았다.

유년부 예배순서를 어린이 심리에 맞게 짜고 회의록, 성적부 등을 작성하고 서류함을 비치하여 영구 보관토록 하였으며 출석, 인도상 제도를 부활하였다.

장년부장에는 종래 경산교회 출신이 아닌 1950년 5월 21일에 서울에서 이명 접수된 이성봉 장로에게 맡겨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였다. 이후 이성봉 장로는 약 11년간 장년부장을 맡아 충성하였다.

한편, 찬양대장에는 정태영, 서용학에 이어 정덕조를 임명하였다. 약 7년 6개월 동안 지휘자를 겸하여 맡아 수고하여 찬양대를 본 궤도에 올려 놓았다.

### 2. 청년회 연합활동

청년면려회 경산군(현재 경산시) 연합회 주최로 부활 연합 음악예배가 1953년 4월에 경산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경산 시내 청년들이 합심하여 음악예배를 드렸다. 경산교회 찬양대와 청년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휘는 경산교회 찬양대 지휘자인 정덕조 집사였다. 정덕조 집사는 음악에 뛰어난 자질이 있고 음악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였다.



### 3. 성경구락부

경산교회는 일찍이 계동학교를 운영하여 경산 일대의 서민들을 상대로 신학문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바 있거니와 다시 성경구락부를 조직하여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소년소녀들에게는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기로 하였다. 당시만 해도 미취학 아동이 많고 중학교 진학률이 저조하였다.

초등과는 사찰실(현재 관리집사 사택) 옆방에 마루를 놓고 교실 형태로 개조하여 남 녀 약 30명을 모집하여 교육하였다. 이에 대하여 1953년 5월 10일에 개최된 제212회 당회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본 교회에서 성경구락부 하기로 허락하되 청원한 60인 정도로 학생을 모집하여 함석 건물과 사찰 옆방을 수리하여 초등과는 사찰 옆방에서, 중등과는 함석집에서 하기로 가결하다」

이리하여 청원한 정주경을 성경구락부 부장으로 임명하여 총괄하도록 하였다. 성경구락부는 미 복장로회 선교사 권세열 목사가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경산교회에서 성경구락부를 설립 운영할 시는 감부열 선교사가 맡고 있었고 총무로는 김소영(후에 목사, 전 영남신학대학 총장)이 맡아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동산에 있는 감부열 선교사 사택에서 모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다소의 보조도 받았다. 한글쓰기부터 초등학교 과정을 속성으로 가르쳤다. 담당은 정영조(여, 후에 목사부인)가 담당하였다. 중등과는 별관(교육관)에서 남녀 약 30명이 중등과정을 공부하였다. 학생들 가운데는 20세 가까운 처녀들도 있었다. 과목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성경, 생물	정주경 (후에 목사)
국어	엄재권 (후에 장로)
국사	이창우 (후에 장로, 영남대 부총장)
영어, 음악	최순호 (후에 목사부인, 장로)
물상	백충기 (후에 의사)



드디어 1953년 5월 25일 밤에 개학하여 경산 일대 60여명의 학생이 모집되어 밤마다 직장과 가정에서 모여들어 열성적으로 공부하였다. 담당교사들 역시 열성적으로 강의하였다. 지역사회의 문맹퇴치와 복음전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 4. 주보 발간

경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주보를 발행기로 하였다. 당시 주보를 사용하는 교회는 흔하지 않았다. 지금은 컴퓨터가 대신해서 등사원지는 볼 수 없지만 등사원지를 끊고 등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알파한 기름종이를 줄판 위에 놓고 철필로 끊거나 그린 다음 이를 등사기 틀에 끼워 그 위를 등사잉크를 바른 고무롤러를 밀어서 종이에 찍어내는 작업을 기술적으로 해내야했다. 실로 오늘날의 주보와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김영실(별세), 장봉학(후에 장로), 정주성(후에 장로) 등이 수고하였다. 경산교회 최초의 주보 발행이었다. 아쉬운 것은 당시의 주보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sup>107</sup>

#### 5. 야외예배

해마다 5월이 되면 신록의 계절을 맞아 야외예배를 드렸다. 온 교인이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 간에 친교를 다졌다. 주로 대정동에 있는 밤 숲에 갔으며, 불신자 가정의 어린이 또는 가난해서 점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점심식사를 넉넉히 준비하기도 하였다.<sup>108</sup>

107 경산교회 제직회, “제275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2. 1. 13).

108 경산교회 당회, “제211회 당회록” (1953. 4. 20).



야외예배(대정동 밤 숲)

## 6. 부흥회 개최

해마다 부흥회를 개최하여 심령부흥에 힘썼다.

### <경산교회 부흥회 개최 상황>

일 시	강 사	비 고
1952. 1	홍대위 목사	제204회 당회록(1952. 10. 19) 제205회 당회록(1952. 11. 19) 제207회 제직회록(1952. 2. 3) 강사 사례금 30만원
1953. 1월 중	?	제204회당회록(1952. 10. 19) 제205회당회록(1952. 11. 19)

### <김삼대 목사 외부교회 부흥회 인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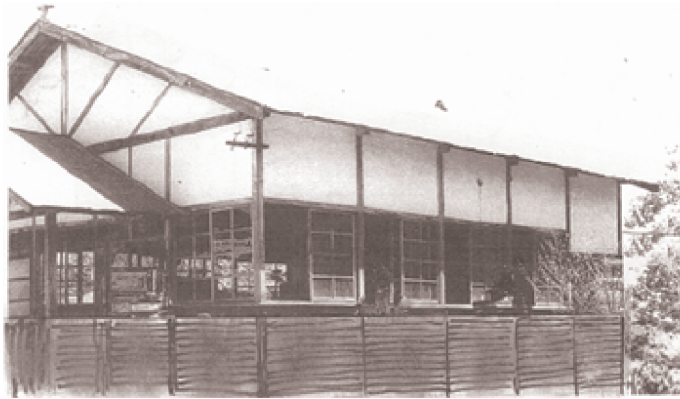
일 시	장 소	비 고
1951. 11. 26~ 1주간	부적교회 (현재 은혜로교회)	제187회 당회록(1951. 11. 4)
1952. 2. 11~ 1주간	봉희교회	제194회 당회록(1952. 2. 1)
1952. 11. 24~ 1주간	전남 고흥읍교회	제205회 당회록(1952. 9. 1) 강사 김삼대 목사 출장허락

## 7. 기타

### ① 별관 신축

석조 예배당을 잘 건축한 경산교회에서 다시 부속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교육사업 등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기획한 것이다.<sup>109</sup>

사진과 같이 건축되었으나 건축일지 및 경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후일 유치원 경영 등 문화사업, 주일학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57년 경산교회 별관 모습

### ② 피아노 구입

교회에서 피아노를 구입키로 하고 현재 적립금 110만원으로 물자를 구입하여 자금을 늘이기로 하고 담당위원으로는 안건수, 정해진, 한시은 집사를 선정하였다.<sup>110</sup> 이 적립금으로 오징어를 구입키로 제직회에서 가결하고<sup>111</sup> 구입하여 적당한 시세에 판매하였다.<sup>112</sup> 이리하여 독일제 피아노를 240만 원에 구입하였다.<sup>113</sup> 그러나 1952년 4월 20일에 개최된 제278회 제1차 임

109 경산교회 제직회, “제288회 제직회록” (1953. 2. 1), 경산교회 제직회, “제291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3. 5. 27), 경산교회 제직회, “제291회 제3차 임시제직회록” (1953. 5. 31).

110 경산교회 제직회, “제272회 제직회록” (1951. 10. 7).

111 경산교회 제직회, “제272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1. 10. 17).

112 경산교회 제직회, “제273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1. 11. 18).

113 경산교회 제직회, “제273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1. 11. 25).



시제작회록에 의하면 피아노 2대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일제 피아노 1대를 매도키로 가결하고 매도위원으로 서용학, 김영훈 장로를 선정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거주하는 채도기 장로(사월교회 시무)에게 350만원에 매도하되 피아노 인도와 동시에 25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추수기에 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산교회에서 피아노가 필요할 시는 현재 가격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 ③ 기독교 대학교 설립기금 보조

1952년 12월 7일에 개최된 제286회 제직회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볼 수 있다.

「대구에서 기독교 대학교 설립기금조로 본 교회 부담금 175만원을 2개년간 기한으로 지불키로 가결하다.」

이로서 보건데 오늘의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를 설립하는데 경산교회에서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계명대학교가 여러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 ④ 가옥매입

예배당 앞에 있는 가옥(주인 김용임)을 매입하였다.<sup>114</sup> 이 가옥으로 인해 정문을 바로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집이었다. 이 가옥을 매입함으로 예배당 정문을 바로내고 교회 앞이 넓어져 매우 좋았다.

114 경산교회 제직회, “제275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2. 1. 6).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심으로 달려갈 100년

## 제6편 교회 발전기

### 제 1 장 최동진목사 목회와 교회의 발전

- 제1절 최동진목사 부임
- 제2절 최동진목사 목회와 교회발전
- 제3절 구역강화 및 복음반 운영
- 제4절 맺는말

### 제 2 장 시련속의 교회성장

- 제1절 김형식목사 목회
- 제2절 권신찬목사 목회
- 제3절 경산중앙교회 분립 및 경산제일교회의 설립
- 제4절 김찬명목사 목회
- 제5절 장로교 분열과 경산교회

### 제6절 김기식목사 목회

### 제 3 장 이만천목사 목회와 교회의 신장

- 제1절 이만천목사 부임 및 교역자 동정
- 제2절 이만천목사 목회
- 제3절 교회시설 및 부동산 확충
- 제4절 선교사역의 시작과 선교회 조직
- 제5절 맺는말

### 제 4 장 이기봉목사 목회와 교회의 안정

- 제1절 이기봉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 제2절 이기봉목사 목회
- 제3절 맺는말

## 제 6 편 교회의 발전기

이제 경산교회 당회록 제4권의 시대로 접어든다. 당회록 제4권은 1955년 3월 6일(주일)에 개최한 제231회 당회(당회장 최동진 목사)부터 1960년 2월 28일에 개최된 제301회까지의 회록이 기록되어있다. 이 시기는 해방 후의 교회재건의 시기를 지나 발전기에 이른다. 중방동에 확장 주일학교가 개설되고 마침내 중방동에 경산중앙교회가 세워진다.

### 제 1 장 최동진목사 목회와 교회의 발전

#### 제1절 최동진목사 부임



최동진 목사

최동진(1920. 3. 6 음) 목사는 경북 경주출신으로 1936년에 세례를 받고 1946년 10월 모량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다 1951년 7월 5일 총회신학교를 졸업한 후 경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1954년 1월 1일 34세의 젊은 나이에 경산교회에 부임하였다.<sup>115</sup>

경산교회에서는 12월 30일 많은 교인들이 나와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였다.<sup>116</sup> 1954년 1월 1일은 따뜻한 겨울로 교인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마당에 모래를 뿌리고 환경 미화를 하여 최동진 목사의 부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할 무렵 교회 종을 쳐서 도착을 알리며 환영을 하였다. 곧 예배당에 모여 부임예배를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참석한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

115 초량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초량교회 100년사』 제일인쇄, 1994, 229.

116 경산교회 제직회, “제292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3. 12. 27).

았다.

최동진 목사는 1954년 9월 5일 공동의회를 거쳐<sup>117</sup> 1954년 12월 17일에 위임식을 거행하여 경산교회 제9대 위임목사가 되었다.<sup>118</sup> 위임식 순서 및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



최동진 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1954. 12. 17)

## 제2절 최동진목사 목회와 교회의 발전

### 1. 교역자 동정

#### ① 김성옥 여전도사

안강교회에서 시무중인 김성옥 여전도사를 청빙하여 1954년 8월 30일 경산교회에 부임하였다. 김성옥 전도사는 만주에서 신학을 마치고 시무경험이 많으며 효심이 지극하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전도실에서 기거하였다.

117 경산교회 당회, “제225회 당회록” (1954. 8. 29), 경산교회 제직회, “제29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4. 8. 29).

118 경산교회 제직회, “제302회 제2차 임시제직회 속회록” (1954. 11. 14).

## ② 김광훈 전도사

김순풍 전도사가 사임한 후(1952. 4) 약 3년 만에 김광훈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김광훈 전도사는 1955년 3월에 부임한 것으로 짐작되며 1956년 3월 11일 까지 시무하였다. 이웃 사월교회에 시무중인 김광명 목사의 동생이며 고향이 이북이었다.

## ③ 정주경 전도사

김광훈 전도사 후임으로 경산이 고향이며 경산교회 서리집사로 시무중이던 정주경이 최동진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제직회를 거쳐 경산교회 남전도사로 1956년 9월 2일에 취임하였다.<sup>119</sup> 1956년 9월 4일 5일에 개최한 제59회 경북노회 시취부에서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 법적자격을 얻게 되었다.

## 2. 당회동정

### ① 김영훈 장로

김영훈 장로는 사월교회에서 1947년 1월 19일에 장로장립된 후<sup>120</sup> 경산교회로 이명 와서 1954년 2월 28일 경산교회 장로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취임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훈 장로

사 회	최동진 목사
설 교	양찬언 목사(사월교회 시무)
성 경	여호수아 3:1~6
서 약	최동진 목사 김영훈 장로
장로에게 권면	최동진 목사
교인에게 권면	이종성 장로

119 경산교회 제직회, “제323회 제직회록” (1956. 9. 2).

120 사월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61.



1958년 2월 19일 김영훈 장로는 서울로 이명해 갔다. 그 후 늦게 신학을 공부하여 김주언으로 계명하여 목사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마을에 난곡중앙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전념하여 교회를 부흥시켰다.

### ② 이종성 장로시무 32주년 기념예배

이종성 장로는 경산교회가 사월교회에서 분립할 때부터 집사로서 상계시무한 설립의 일원이었다. 1923년 7월 15일에 경산교회 다섯 번째 장로로 장립받아 초대주교교장과 장년부장으로, 특별히 당회서기로서 오랜 세월 수고하였다. 또한 총대 및 기타 대외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하였다. 경산교회에서는 1954년 9월 1일에 이종성 장로시무 32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그날 경비로 3,000환을 지불하고 체경(큰 거울) 1대를 증정하여 그 공을 기렸다.<sup>121</sup> 1955년 3월 6일 대구 대봉교회로 이명가서 대봉유치원 설립자로, 주일학교 유년부장으로 다년간 수고하였으며 노회 총대로 일하다 1964년 3월 24일 별세하였다.<sup>122</sup> 이종성 장로는 일제 강점기의 모진 압박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지대한 공을 세웠다.

### ③ 성경사범반

당회 직속 하에 성경사범반을 신설하기로 하여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였다.<sup>123</sup> 수호실(관리집사 사택) 옆방에 방한장치를 하여 개강기로 하였다.<sup>124</sup>

### ④ 이성봉, 강의덕 장로 장립

1955년 3월 제28회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 받은 이성봉, 강의덕, 정중환 세 사람 중 중경장로인 이성봉, 강의덕 두 사람의 취임식이 5월 19일(목)

121 경산교회 제직회, “제29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4. 8. 29).

122 황지호, 『대봉교회 40년사』 영광문화사, 1988, 40.

123 경산교회 당회, “제228회 당회록” (1954. 12. 16).

124 경산교회 제직회, “제304회 제직회록” (1955. 1. 2).

에 있었다.

이성봉 장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 청량리 전농교회에서 이명 왔으며 1950년 5월 21일에 개최된 제176회 당회록에 이명이 접수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만주에서 오래 살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왔다.



이성봉 장로



강의덕 장로

강의덕 장로는 대구 대남교회에서 이명해 왔다. 1954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228회 당회록에 이명이 접수되어 있다. 경산교회에 재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하였다.



이성봉, 강의덕 장로 취임 기념(1955. 5. 19)  
 앞줄 좌에서 네번째 최동진 담임목사  
 다섯번째 이성봉 장로, 여섯번째 강의덕 장로

⑤ 서용학 장로 이명

서용학 장로는 1948년 5월 장로 장립한 후 주교 유년부장으로 찬양대 초대 지휘자로, 대장으로 많은 방면에서 수고하였다. 1955년 9월 11일 가족 전원이 대구 중앙교회로 이명가게 된다. 서용학 장로는 이종성 장로의 사위이기도 하다.

⑥ 정종환 장로 장립

정종환 장로는 1955년 11월 16일에 장로 장립하여 경산교회 17번째 장로가 되었다.<sup>125</sup> 정종환 장로는 당회 서기로 10년 7개월, 제직회 서기로 약 12년간 최장기로 시무하였다. 1977년에는 경산교회출신으로 제14대 경청장로회 회장으로도 수고하였다. 1983년 2월 23일 별세하기 까지 경산교회 장로로 시무하였다.



정종환 장로



정종환 장로 장립기념 (1955. 11. 16)

(의자에 앉은 사람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정종환장로, 다섯 번째가 최동진 담임목사)

125 경산교회 당회, “제240회 당회록” (1955. 10. 30).



⑦ 수호인 당회에서 직접 임명

서리 집사는 후보를 당회에서 선정해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는 중 수호인 강용도는 당회에서 직접 임명하기로 하였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⑧ 예배 광고 위원

1956년도부터 주일 낮 예배 광고 위원을 장로 중 매월 윤번제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 듯하다.<sup>126</sup>

⑨ 지도위원회 도입

당회 산하 각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감독하고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당회원이 책임자로 있는 기관은 제외하고 지도위원을 임명하였다.<sup>127</sup>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 면려회	정중환 장로
주일학교 유년부	이성봉 장로
주일학교 소년부, 소년 면려회	안상기 장로
청년 면려회	김영훈 장로
여 전도회	최재학 장로
찬양대	강의덕 장로

3. 제직회 상황

제직회에 기획부를 신설하여 제반업무를 기획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초대부장에 김광훈 전도사를 선정하였다. 동시

126 경산교회 당회, “제244회 당회 속회록” (1955. 12. 17).

127 경산교회 당회, “제244회 당회 속회록” (1955. 12. 17).

에 남 여 전도사에게 제직회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부여하였다.<sup>128</sup>

교회 제직회 부서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서무 부장 김영훈 장로

재무 부장 이종성 장로

교육 부장 최재학 장로

구제 부장 이성봉 장로

봉사 부장 서용학 장로

수리 부장 안상기 장로

장로들이 부서의 장을 맡아 해당부서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리 집사 취임 서약문을 아래와 같이 가결하여 신앙무장을 더욱 든든히 하였다.<sup>129</sup>

〈서리 집사 취임 서약문〉

1. 집사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진보를 위하여 진력하며 또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집사직에 관한 범사를 성실히 행하기로 서약 하느뇨
2. 여러분들은 교회 모든 회합(會合)에 충실히 참석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에 진력하기로 서약 하느뇨
3. 여러분들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진력하며 대외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완수하기로 서약 하느뇨 (이상 권찰도 포함함)

4. 주일학교 발전 및 찬양대

① 유치부의 독립 및 소년부(현재 중등부) 신설

어린이는 나라와 교회의 소망이다. 주일학교가 부흥되니 유치반은 주일학교 유년부에 속해 있었으나 독립하기로 하였다. 1954년 6월 11일에 개최된

128 경산교회 제직회, “제307회 제직회록” (1955. 4. 3).

129 경산교회 제직회, “제255회 당회록” (1957. 1. 5).

제 223회 당회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치부 아동이 너무 과다하므로 유치부를 독립하기로 하고 부장은 주교 교장에게 일임하여 선정 임명하기로 가결하다.」

이리하여 유치부 초대 부장에는 김신옥이 담당하게 되었다. 김신옥은 경산 유치원 보모 선생으로 유치부 지도에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서울 영락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바 있는 림영수 담임목사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파악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보다 차원 높은 교육을 위하여 유년부의 건의에 따라 주일학교를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1954년에는 소년부를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중등부라 칭하고자 하였으나 당시만 해도 중학교 진학률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중학교 미취학 소년소녀들의 소외감을 생각하여 소년부라 부르기로 하고 초대 소년부장에 정주경을 당회에서 임명하여 소년소녀들에 대한 주일학교 교육을 일층 강화하게 되었다.

유년부장에는 24세의 서리집사인 엄재권이 담당하였다. 엄재권은 글씨와 성악에 능하고 피아노도 잘 쳐서 유년부 지도에 적격자이었다.



소년부(현재 중등부) 제1회 졸업기념(1955. 1. 24)

1955년 주일학교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sup>130</sup>

- 장년부장    최재학
- 소년부장    정주경
- 유년부장    엄재권
- 유치부장    김신옥

### ② 찬양대

이 무렵 찬양대 곡집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였다.<sup>131</sup> 찬송가 외에 성곡을 활발히 불렀다. 또한 찬양대 가운을 42착 만들어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불렀다<sup>132</sup> 예배에 엄숙과 경건에 더하였다. 찬양대장 겸 지휘자는 정덕조가 부대장에는 엄재권이 담당하였다.

### ③ 주일학교 시찰단 내방

경산교회 주일학교의 발전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대구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성기 장로 외 다수가 경산교회 주일학교 시찰차 1956년 8월 11일(주일)에 대구에서 경산교회로 시찰단이 내방하였다. 그때만 해도 비포장도로인 대구 경산 간 16Km를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뜻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경산교회에서는 7,500환을 지출하여 환영하였다. 그날 주일학교의 여러 모습을 참관하고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토의하며 주일학교의 발전에 격찬하고 돌아갔다.<sup>133</sup>

130 경산교회 당회, “제228회 당회록” (1954. 12. 16).

131 경산교회 당회, “제306회 제1차 임시당회록” (1955. 4. 3)

132 경산교회 제직회, “제321회 정기제직회록” (1956. 7. 1)

133 경산교회 제직회, “제322회 제직회록” (1956. 8. 4), 경산교회 제직회, “제323회 제직회록” (1956.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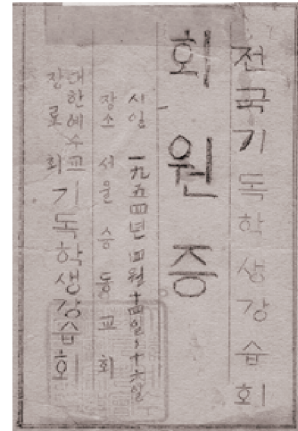
#### ④ 서약문

이 무렵 주일학교 및 찬양대의 발전과 교사 및 대원의 향상을 위하여 각 주일학교 직원 및 찬양대 취임 서약문을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여러분들은 스승된 자의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한 줄을 자각하고 자신의 향상과 성경을 깊이 상고하여 신실히 그 직분에 봉사하기로 서약 하느뇨
2. 여러분들은 교회의 공식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함으로 모든 교우 앞에 솔선수범이 되고 교회 내외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심껏 노력하기로 서약 하느뇨

#### 5. 전국 대학생 지도자 회의 파송

1954년 4월 13일부터 서울(연세대)에서 개최된 전국 대학생 지도자 회의에 정주경과 백충기를 경산교회에서 파송 하였다. 전국 교회에서 모인 기독교 대학생들이 장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교회에서는 1,000환을 여비조로 보조하였다.



#### 6. 십자가 구락부(중방동 확장 주일학교)

학생 면려회에서는 1955년 약 1년 동안 회장 백충기(당시 경대 의대생)와 전도부장 한중근(당시 경대 사범대 문리과 학생)의 지도아래 중방 2구 소년 전충웅의 집 마당에서 십자가 구락부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배우지 못한 가난한 소년 소녀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며 전도에 힘을 썼다. 인원은 약 30명이 모였다. 주일마다 어린이들이 많아지자 천막이 필요하여 주일학교 소년부에서 반액, 제직회에서 반액을 분담하여 서용학 장로와 한중근 학생이 미군용 천막(24인용)을 구입하여 중방동 한시은 집사 소유의 감나무 밭 2,000평에다 천막을 쳤다. 십자가 구락부가 장차 중방교회로 발전할 수 있겠으니 여기



에 천막을 치면 이것을 장차 중방교회가 될 십자가 구락부에 헌납하겠다고 해서 천막을 세웠다. 그 후 최동진 담임목사의 요구로 학생회는 손을 떼고 십자가 구락부를 중방동 확장 주일학교로 발전키로 하였다. 십자가 구락부에 나오는 어린이는 경산교회 유년부로 보내고 성인은 본 교회로 보내도록 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 와중에 학생회장 백충기는 당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된다. 후일 학생회(회장 백충기)에서 운영하던 십자가 구락부를 당회에서 중방동 확장 주일학교로 개편, 부장에 안건수 집사(후에 장로)를 임명하였다.

### 7. 유치원 설립

어린이들의 조기 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산교회에서는 일찍이 1923년에 유치원을 경영한바 있으며<sup>134</sup> 1954년에 다시 유치원을 설립키로 하고 그 해 7월 1일에 개원하였다. 1954년 1월 24일에 개최된 제293회 제1차 임시제직회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선출하였다.

- 원 장 최재학 장로
- 원 감 안건수 집사
- 회 계 엄재권 집사



1954년 경산교회유치원 일동

134 경산교회 당회, “제23회 당회록” (1923. 1. 8).



그 당시만 해도 경산 유일의 유치원으로서 유아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유치원 이사회를 구성기로 하고 1955년 3월 6일(주일)에 개최된 제231회 당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강의덕 장로, 김학조 집사, 서용학 장로, 정중환 집사, 김영훈 장로를 이사로 선출하였다.

또한 교회에서는 유치원 경영비로 매월 3,500환씩 보조하기로 하였다.<sup>135</sup> 그 전에 유치원 「란노」가설 비용 중 1,000환을 교회에서 부담하였다.<sup>136</sup>

### 8. 중방교회(경산중앙교회)의 태동

이무렵 제직회에서 중방동에 분립교회를 설립하기로 가결하고 추진위원을 회장 자력으로 다음 10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sup>137</sup> 최재학 장로, 안상기 장로, 강의덕 장로, 김영훈 장로, 안건수 집사, 한시은 집사, 신길순 집사, 최일조 집사, 권영희 집사, 박분남 집사 이었다.

또한 부흥사경회에서 중방교회 설립 기금으로 200만환 예산하여 연보키로 가결하다 (100만환 수입)<sup>138</sup>

1. 중방동 분립교회를 위하여 특별헌금을 제직원은 그 자리에서 예비 작성키로 가결하다.

1. 작성한 연보는 4월말에 반액, 9월말로 완납키로 가결하다.

이상과 같은 결의를 함으로 오늘날의 경산중앙교회의 태동의 시초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 9. 개척전도

본 교회에서는 개척전도를 작성하고 본 교회에서 전도인을 파송키로 하였

135 경산교회 제직회, “제135회 제직회록”(1955. 2. 9), 경산교회 제직회, “제309회 제직회록”(1955. 6. 5).

136 경산교회 제직회, “제303회 제직회록”(1954. 12. 12).

137 경산교회 제직회, “제316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56. 1. 15).

138 경산교회 제직회, “제316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1956. 1. 29).

다.<sup>139</sup> 파송지를 고산면 가천동으로 결정하였다.<sup>140</sup> 현지 조사를 위한 위원 3인은 회장에게 일임하였다.<sup>141</sup> 가천교회 건축을 위한 목재대금 5만원 중 반액을 경산교회에서 부담하였다.<sup>142</sup> 또한 가천교회에 장병세 전도시를 파송함을 볼 수 있다.<sup>143</sup> 경산교회에서는 매월 3,000환씩 보조하였다.<sup>144</sup>

### 10. 부흥사경회 개최상황

일 시	부흥강사	근 거
1954.2.16~	라운몽 장로	제294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1954. 2. 21) 제219회 당회록(1954. 2. 7)
1955.	김형식 목사	제304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1955. 1. 9)
1955.1	강일봉 선생	제304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1955. 1. 9)
1955.10.10	홍대위 목사	제312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55. 9. 11) 제239회 당회속회록(1955. 10. 16)
1956.2.12~ 2.19새벽	김두영 목사	제316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56. 2. 18)
1957.1.7~ 1.14새벽	장성찬 목사	제324회 제직회록 (1956. 10. 7) 제325회 제직회 제3차 임시제직회록(1956. 12. 29)
1957.8	김무봉 목사	제333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57. 8. 15)

### 11. 최동진 목사의 부흥집회 인도

1954. 11. 2 ~ 7 대구 달성교회

1954. 11. 22 ~ 26 칠곡 시찰 사경회<sup>145</sup>

139 경산교회 제직회, “제304회 제직회록” (1955. 1. 2).

140 경산교회 제직회, “제305회 제직회록” (1955. 2. 9).

141 경산교회 제직회, “제305회 제직회록” (1955. 2. 9).

142 경산교회 제직회, “제315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5. 12. 4).

143 경산교회 제직회, “제316회 제직회록” (1956. 1. 1).

144 경산교회 제직회, “제316회 제직회록” (1956. 2. 5).

145 경산교회 당회, “제226회 당회록” (1954. 10. 28).



1955. 4. 18부터 1주간 대봉교회

1955. 5. 9부터 1주간 성복교회

## 12. 교회묘지

본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묘지 설립을 희망해 오던 중 1955년 9월 11일에 개최된 제312회 제1차 임시제직회에서 교회묘지 허가에 대한 위원에 최재학 장로, 안건수 집사, 신길순 집사로 선정하였다. 1956년 3월 4일에 개최된 제317회 제직회에서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후에 추진위원을 증가키로 하고 강의덕, 신길순 집사 2인을 선정하였다.<sup>146</sup> 이리하여 평산동에 1965년 4월 1일자로 법원에 등기되고 교회묘지로 사용키로 등기 완료하였다.

## 13. 사기편찬 위원회 조직

경산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사기편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55년 1월 3일에 개최한 제30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희년 기념사업으로 본 교회사 편찬키로 가결하고 위원은 회장에게 일임키로 가결하다」

경산교회 설립 희년이 1959년인바 희년 기념으로 경산교회 50년사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다.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회장(최동진 목사)에게 일임하였다. 1955년 10월 2일에 개최한 제313회 제직회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교회사 편찬위원을 안상기 장로, 최재학 장로, 안성근, 엄재권, 정주경 제 집사를 회장이 발표하다」

아쉽게도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다만 역대 담임목사 사진을 모으고 기관장(속회장)사진 및 시무 연한을 조사 한 것이 오늘날 100년사 편찬에 요긴하게 쓰였다. 아무튼 경산교회 사기편찬 위원회가 최초로 가동되었다 하겠다.

146 경산교회 제직회, “제325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6. 12. 9).

## 14. 기타

### ① 구제물자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다. 이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미국의 선교부에서 구제물자를 보내왔다. 양복 등을 포함한 의류 종류가 많았으며 기타 여러 물품이 있었다. 가장 좋은 양복 등은 교역자의 몫으로 돌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으나 말썽도 뒤따랐다.

경산교회에서는 구제물자를 입찰 매각 처분하여 대금은 교회 별관 건축을 위한 건축회계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고 처분위원으로 서용학 장로, 김영훈 장로, 한시은 집사, 안건수 집사, 김수선 집사를 선정하였다.<sup>147</sup> 미국 선교부에서 구제품을 보내오는 것도 얼마 후 중단되었다.<sup>148</sup>

### ② 김윤국 목사 환영

주일학교 유년부 및 소년부(현재 중등부) 반사와 집사로 수고하고 있으며 경산 사정동에 소재한 경산 애육원(고아원) 원장인 김유근의 남편인 김윤국 목사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함에 따라 경산교회에서는 환영예배를 드리고 다과회를 베풀었다. 본래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이남으로 온 김윤국 목사는 후에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다시 도미하여 목회생활을 한 후 귀국하여 영락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sup>149</sup>

### ③ 성탄절 사회봉사

해마다 성탄절 무렵이면 교회에서 떡을 만들어 경산시 압량면 평산동에 있

147 경산교회 제직회 “제297회 제직회록” (1954. 5. 2).

148 경산교회 제직회, “제308회 제직회록” (1955. 5. 1).

149 경산교회 제직회 “제322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6. 8. 22), 사월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월교회 100년사』 동아문화사, 1999, 266.

는 경산 정양원(상이군인회)과 경산 애육원(고아원)에 보내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1954년 성탄 무렵에는 가두급식소를 설치하여 전쟁 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유를 끓여 제공함으로 사회봉사에 힘썼다. 이 가두 우유급식을 제직회 봉사부에 일임하여 실시하였다.<sup>150</sup>

#### ④ 부활절 산상예배 및 저녁연합예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뜻 깊은 부활주일 새벽에는 해마다 동산에 온 교인이 모여 산상예배를 드렸다. 사망에서 생명을, 흑암에서 광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우러러 보는 체험을 새롭게 하였다. 저녁예배는 인근 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려 주님 부활의 은총을 함께 나누었다.<sup>151</sup>

#### ⑤ 청년 연합운동의 활성화

1951년에 조직된 청년 면려회 경산군 연합회가 활발한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1953년에 이어 1955년 8월(8일~11일)에 경산군(현재 경산시) 전체 청년들이 모여 경산교회당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경산교회에서는 장소 제공



기독청년면려회 경산군연합회 제1회 수양회(1953. 8. 3)

150 경산교회 제직회, “제304회 제직회록” (1955. 1. 2).

151 경산교회 제직회, “제306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5. 3. 27).

은 물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5,000환을 보조하기도 하였다.<sup>152</sup> 청년 연합운동의 중심은 항상 경산교회 청년 면려회가 있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조직은 점차 총회 및 노회의 질서가 잡혀감에 따라 노회산하기관으로 재조직되었고 자연 노회산하기관에 흡수되어 해체되었다.

### 제3절 구역강화 및 구역 복음반 운영

각 구역 구역장제도를 다시 실시하였다. 처음 구역장제도를 1944년에 실시한바 있으나 그 후 실시한 기록은 없으며 이때부터 다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역장은 장로가 담당하여 권찰을 지휘하며 보다 효율적인 심방 및 전도를 통해 교인들을 돌보았다.

삼북구	이성봉 장로
삼남, 서상구	안상기 장로
백천, 신교, 상방구	김영훈 장로
중방 1, 3구	최재학 장로
중방 2구	이종성 장로
사정 1, 2구, 옥곡 1, 2구	서용학 장로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여 권찰 밑에 복음반을 조직하였다. 오늘날의 셀(Cell) 목회방법을 취하기로 하고 제직회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정주경 전도사에게 규약을 작성토록 하였다.

복음반 규약은 다음과 같다.

152 경산교회 제직회, “제310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5. 7. 17).



## 〈경산교회 조직 체계 및 구역복음반 운영에 관한 규약〉

### 제1장 총 칙

제1조 : 본 세칙은 교회조직의 대강과 구역 및 복음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복음운동을 전개하여 교회부흥을 도모하며 교회와 교인간의 유기적 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며 나아가 교회가 맡은바 사명을 완수코자 함이 이 세칙의 목적임

제2조 : 이 세칙의 구역단위는 당회에서 정하며 구역장 및 권찰은 당회에서 임명함

제3조 : 각 구역 복음반 편성은 구역장이 권찰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복음반장은 구역장 권찰과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4조 : 이 세칙의 목적을 완수함에는 무엇보다 불타는 사명감에 있으니 기쁨으로 심방하며 복음을 전하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할 것임

### 제2장 조직 및 직분의 임무

제5조 : 교회 제직회에 조직부를 두어 당회의 지도하에 조직, 연락, 계획, 심방전도 및 각 구역의 복음반의 운영지도를 담당함

제6조 : 각 구역에 구역장 일인 및 남녀 권찰을 두며 구역장 및 권찰의 주관하에 수호, 내지 십호 단위로 복음반을 조직하며 이반에 반장을 둘 단 필요에 따라 부반장을 둘 수 있음

제7조 : 구역장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역예배의 인도
2. 구역 내의 각종집회의 주관
3. 복음반장의 임명 및 복음반의 지도
4. 구역 내의 전도사업의 지도



5. 병자, 낙심자, 초신자, 결신자, 극빈자의 즉시 심방 및 위로와 권고
6. 매월2회 이상의 구내 매호심방 단, 권찰과 동행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구내 일절상황의 신앙적 지도

제8조 : 각 구역 권찰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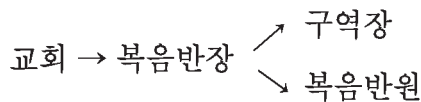
1. 교회와 구역과의 연락상황
2. 구역 내의 제반집회 소집의 연락
3. 복음반의 운영지도
4. 매월 2회 이상의 구내 매호심방 (단, 구역장과 동행함을 원칙으로 함)
5. 매주 1회 이상의 복음반장 심방
6. 구역 내의 전도사업
7. 구역 내의 구제사업
8. 기타사항

제9조 : 각 구역 복음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1. 구역장 및 권찰과 복음반원과의 연락
2. 복음반 내의 제반사항의 조사보고
3. 당회의 지시사항의 전달
4. 복음반 내의 불신자에 대한 전도
5. 매주1회 이상의 심방
6. 기타 구역장 및 권찰의 지시사항

### 제3장 연락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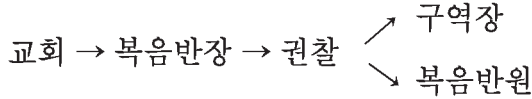
제10조 : 교회에서 교인에게 연락사항이 있을시 다음순서로 연락함



단, 권찰은 구역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함



제11조 : 복음반의 사항을 교회에 보고할 시는 다음순서로 연락함



단, 권찰은 구역장을 경유하여 교회에 보고하되 긴급할 시는 권찰 및 복음반장 반원은 직접교회에 연락한 후에 이 순서를 따를 수 있음

제12조 : 복음반장은 반내에 사항을 별정보고서 제일(一)호 양식에 의하여 매주 화요일에 권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권찰은 각 복음반 보고서를 일괄한 후 별정보고서 제 이(二)호 양식에 의한 권찰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역장 경유 수요일 새벽까지 제직회 조직부에 제출하며 조직부는 각 구역 보고서를 일괄하여 별정보고서 제삼(三)호 양식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당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함

제13조 : 복음반장 및 권찰은 다음사항을 즉시 당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직부 및 구역장에게도 연락해야함

1. 병자의 발생
2. 낙심자
3. 결신자
4. 기타유고 사항

#### 제4장 심방 및 전도

제14조 : 조직부장 혹은 부원은 각 구역을 심방하여 감독지도하며 각 구역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당회에 보고함

제15조 : 각 구역장은 수시로 구역 내를 심방하되 매월2회 이상 전 가정을 심방하여야 하며 다음가정 및 교인은 지체 없이 심방을 하여야함. 단, 권찰과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심방 불능 시에는 즉시 권찰에 위임시키거나 조직부에 연락하여야함.

1. 병 자
2. 낙심자
3. 초신자
4. 결신자
5. 기타유고 가정

제16조 : 동시에 구역장은 심방결과를 지체 없이 당회에 보고하며 권찰로 하여금 조직부에 보고하게 함

제17조 : 권찰은 수시로 구역 내를 심방하며 매월 2회 이상은 구역 내의 전가정을 심방하여야함 단, 구역장과 동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조사 지도함

1. 예배출석사항(주일낮 밤 수요일 구역예배)
2. 가정예배 상황
3. 병자에 대해서
4. 낙심자에 대해서
5. 초신자
6. 결신자
7. 출타사항
8. 성미사항
9. 전도사항
10. 기타특별사항

제18조 : 권찰은 매주 1회 이상 구역내 전 복음반장을 심방하여 지도 감독하여야함

제19조 : 각 구역 각 반장은 매주 2회 이상 반원의 가정을 심방하여 제16조 각 사항을 조사지도하며 보고하여야함

제20조 : 각 구역에 각반별로 신도 배가 운동을 계속 실시함

제21조 : 각 구역 구역장 권찰 및 복음반장은 책임구역의 불신자에 대해서 전도할 책임이 있음



제22조 : 복음반장은 반경내에 거주하는 불신자 가정에 매주2회 이상 심방하여 전도할 책임이 있음 단, 복음반원도 협력하여야함

제23조 : 복음반원은 매주 1회 이상 불신자 가정을 심방하여 전도에 힘써야함

제24조 : 조직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목요일밤 혹은 기타 일에 다음과 같이 적절한 심방을 실시함 단, 수요일 밤 회의시 권찰보고서에 의하여 발표해서 심방원을 모집하여 목요일에 출석케 하여 매월 1회는 행하여야함

1. 구역별 심방
2. 연령별 심방
3. 직업별 심방
4. 성별심방
5. 기타희망에 따라

### 제5장 집 회

제25조 : 매 수요일 예배직후에는 당회장 사회 하에 조직부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토의하며 연구 실천함

1. 각 구역현황보고
2. 조직부서에서 종합상황보고
3. 조직부서에서 심방계획지시
4. 연락의 철저
5. 전도사업의 철저
6. 기타사항

제26조 : 각 구역 구역장인도로 매 금요일 밤 구역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며, 권찰은 별정예배 일지를 당회에 제출함

1. 장소는 신자가정 윤번으로
2. 강사는 구역장을 원칙으로
3. 각 복음반장의 현황보고 발표

4. 각 구역 당면문제 토의
5. 전도사업에 대한 토의
6. 기타

제27조 : 구역예배시 헌금을 걷을 시는 사전당회의 승인을 요함

제28조 : 매월 4차 금요일 낮예배 직후 권찰회를 개최함 단, 필요에 따라 복음반장도 참석할 수 있음

제29조 : 각 구역장은 매월 1회 이상 구역권찰 복음반장 반장회의를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토의 연구함

1. 심방계획 및 전도사업
2. 유고가정의 위로 및 대책
3. 구역 내 교인 상호친선도모
4. 기타

제30조 : 복음반장은 필요에 따라 반회를 개최하되 2개월에 1회는 개최하여야함

## 제6장 부 칙

제31조 : 조직부 및 각 구역 각 복음반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1. 신자명부 및 불신자명부
2. 각종 출석부
3. 전도사업 및 심방계획에 대한 장부
4. 구역예배 일지 및 보고서
5. 배가운동명부

제32조 : 각 구역 구역장 및 권찰이 1일 이상 출타시 사전에 당회 및 조직부에 연락하여야 하며 복음반장이 3일 이상 출타 시는 구역장 및 권찰에 사전 연락하여야함

제33조 : 각 구역직분의 출타연락을 받은 조직부장 및 구역장 권찰은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야함

제34조 : 이 세칙의 수정 및 개정은 당회에서 할 수 있음

제35조 : 이 세칙은 통과로서 발효함

주후 1955년 3월 27일

### 제4절 맺는말

최동진 목사는 해방 후 교회 재건기를 거쳐 새롭게 건축한 화강석 예배당에서 활발하게 목회를 하는 중 교회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데 대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

최동진 목사는 외유내강의 성격으로 전형적인 원만한 목회자였다. 월요일에는 부교역자는 쉬게 하고 혼자서 주일에 결석한 가정을 심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뜨거운 기도는 교회부흥의 큰 밑거름이었다.

최동진 목사는 1957년 9월 25일에 소집된 제334회 제1차 임시제직회에서 사표가 수리되었다. 그 무렵에는 원만히 하는 의미에서 소수의 당회보다 제직회에서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같은 해 9월 30일 송별만찬회와 예배를 드렸다.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 온화한 가을 날씨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송별의 정을 나누었다. 최동진 목사가 기도하고 부산으로 향하였다. 역시 많은 교인들이 경산역 구내 플랫폼까지 들어가서 멀리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부산 초량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리하여 당회록 3호 시대가 마감된다. 1946년 12월 23일 부터 1954년 12월 까지이다. 이 시기는 광복 후 교회 재건기로서 1947년에 오태환 목사 부임 후 화강석으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교회가 성장 중 6. 25 전쟁으로 민족의 시련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교회부흥에 이바지한 최동진 목사는 당회록 4호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 제 2 장 시련속의 교회 성장

### 제1절 김형식목사 목회



김형식 목사

최동진 목사후임으로 서울 상도교회에서 시무하던 김형식 목사가 1957년 10월 8일에 부임하였다.<sup>153</sup> 김형식 목사는 부흥강사로 유명하였다. 1955년 1월에 경산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도 하였다. 1958년 4월 29일에 위임식을 거행하여 경산교회 제10대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sup>154</sup>

김형식 목사는 유명한 부흥강사로 자주 부흥회 인도 차 출타하여 1년에 4회로 제한하여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논의하기도 하였다. 김형식 목사는 1958년 10월 12일 사임하게 된다.<sup>155</sup>

#### 1. 교역자 동정

김형식 목사의 부임과 함께 1954년 8월 30일에 부임하여 시무해온 김성옥 여전도사가 1958년 1월 29일에 사임하여 고향인 경북 안강으로 돌아갔다.<sup>156</sup>

그해(1958년) 6월 25일에는 정주경 전도사가 사임하여 대구문화교회로 전임하였다. 후임에는 이봉학 장로를 명예전도사로 등용하기로 하였다.<sup>157</sup>

이봉학 장로는 청도에서 와서 무임장로로 시무 중 제270회 당회(1958. 3. 24)에서 언권을 허락하기로 가결하였다. 오늘날의 협동장로와 같은 것

153 경산교회 제직회, “제335회 제직회록” (1957. 10. 6).

154 경산교회 제직회, “제340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8. 3. 23).

155 경산교회 제직회, “제347회 임시제직회록” (1958. 10. 2).

156 경산교회 당회, “제264회 당회록” (1958. 1. 28).

157 경산교회 당회, “제275회 당회록” (1958. 7. 1).



김형식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전교인과 함께 (1958. 4. 29)

이다. 당시 직장은 경산경찰서 경리주임(경위)으로 있었다. 1958년 9월 7일에 개최된 제346회 제직회에서 무보수로 전도사직을 감당하는 이봉학 전도사에게 매월 도서비조로 3,000환을 지불하기로 함을 볼 수 있다. 이봉학 장로는 후일 목사가 되어 압량제일교회(현재 은혜로교회), 경산중앙교회, 경청노회장, 교단총무로 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004년 2월 5일에 별세 하였다.

또한 김성옥 여전도사 후임으로 서울의 주성애 여전도사를 청빙키로 하고<sup>158</sup> 1958년 2월 14일 부임하였다.

## 2. 찬양대

오랫동안 찬양대를 맡아 수고한 정덕조 집사를 대장 겸 지휘자로 임명하였다. 정덕조 집사는 음악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음악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

158 경산교회 당회, “제265회 당회록”(1958. 2. 2), 경산교회 제직회, “제339회 제직회록”(1958 2. 2).



으로 매우 열성적이었다. 소프라노 12명, 알토 11명, 테너 9명, 베이스 9명으로 총41명이었다. 잘 단합하여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도왔다.<sup>159</sup>



김형식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찬양단과 함께 (1958. 4. 29)

### 3. 주일학교 상황

1958년부터 주일학교 각부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부서를 조직하였다. 교장은 담임목사인 김형식 목사로 하고 교장 밑에 주일학교 각부서를 통합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을 두기로 하고 처음에는 교무처장이라고 하였으나 너무 거창한 이름이라하여 총무로 하고<sup>160</sup> 정주경 전도사를 임명하였다.

부별로 회계를 두지 않고 재정도 각부서를 통합하여 주일학교 회계에 신길순 집사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부장 밑에 부감을 두어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1958년도 주일학교 각부서의 부장 및 부감은 다음과 같다.<sup>161</sup>

159 경산교회 당회, “제261회 당회록” (1958. 1. 4).

160 경산교회 당회, “제260회 당회속회록” (1957. 12. 22).

161 경산교회 당회, “제260회 당회속회록” (1957. 12. 22).

유치부장 현선숙 선생

유년부장 엄재권 집사, 부감 안성근 집사, 허 영 집사

소년부장 이봉학 장로, 부감 신길순 집사, 이원상 선생

고등부장 강의덕 장로, 부감 정중환 장로

장년부장 최재학 장로, 부감 이성봉 장로

한편 중방동에 확장주일학교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사실은 1955년 최동진 목사 목회시 있었던 중방동 확장주일학교의 재건이었다. 큰 천막을 현재 중방동소재 경산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치고 1958년 1월 9일(목) 인근



중방동 확장 주일학교 개회예배를 마치고 (1958. 1. 9)

어린이들과 제직들이 모인 가운데 천막 안에서 김형식 목사의 인도로 개회 예배를 드렸다. 주일마다 어린이 3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 4. 기독교 봉사조합

사회 전반적으로 상거래에 불신이 만연되어있던 시기에 교회가 기독교 봉사조합을 설립하였다. 중방동에 개점하여 정찰제를 실시하여 생활용품을 판매한바 올바른 상거래에 기여하여 불신사회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총무에 안건수 집사(후에 장로), 서기(판매원)에 현정숙 집사가 담당하였다. 1958년 4월 1일에 개점감사예배와 함께 개점하였다. 봉사조합의 이익금을 전도와 구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기독교 봉사조합 개점기념(1958. 4. 1)

#### 5. 기타

주일성수를 위하여 오랫동안 야외에 가서 예배드리고 친교 하던 야외예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sup>162</sup> 청장년회에서 교회상여가 오래되고 불결함으

<sup>162</sup> 경산교회 제직회, “제345회 제직회록” (1958. 8. 3).

로 새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에 일만원 보조를 받고 상여 대여비는 청장년회에서 관리함을 볼 수 있다.<sup>163</sup>

김형식 목사는 생활이 검소하고 질서 있게 정돈하며 한복과 흰 고무신을 자주 신고 설교는 열화와 같이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남몰래 고학생을 돕기도 하였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단기목회가 되어 매우 아쉽기 그지없다.

## 제2절 권신찬목사 목회

### 1. 권신찬목사 목회



권신찬 목사

김형식 목사 후임으로 영양교회에서 시무하던 권신찬 목사<sup>164</sup>가 1959년 2월말에 임시목사로 부임왔다.<sup>165</sup> 권신찬 목사 부임까지는 당회장으로 사월교회 당회장 김광명 목사가 수고하였고 설교는 김용규 목사가 맡아 수고하였다.<sup>166</sup>

권신찬 목사는 1960년 6월 1일(수)에 송별예배를 드림으로 약 1년 3개월의 짧은 임시목사 시무를 마치게 된다.<sup>167</sup> 이 기간에 이봉학 장로가 명예전도사로 계속 시무하며 주일학교 고등부 부장직도 맡아 수고 하였다.

주성애 여전도사도 계속 시무하였으나 청원 혹은 사표제출 불수리 등의 기록을 당회록 및 제직회록에서 볼 수 있다.<sup>168</sup> 1960년에도 계속 시무케 하도록 하였다.<sup>169</sup>

163 경산교회 제직회, “제351회 제직회록” (1959. 2. 1).

164 경산교회 제직회, “제357회 제직회록” (1959 2. 1), 경산교회 제직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9 2. 15).

165 경산교회 제직회, “제352회 정기제직회록” (1959. 3. 1).

166 경산교회 제직회, “제351회 정기제직회록” (1959. 2. 1).

167 경산교회 제직회, “제363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60. 5. 29).

168 경산교회 제직회, “제350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9. 1. 18), 경산교회 당회, “제277회 당회록” (1958. 9. 14).

한편 1959년도 주일학교 각부서의 부장은 다음과 같다.<sup>170</sup>

- 유치부장 김태히 집사
- 유년부장 엄재권 집사
- 소년부장 이영찬 집사
- 고등부장 이봉학 장로
- 장년부장 이성봉 장로

권신찬 목사는 성품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재임 중 중방동에 교회를 분립하도록 하고 1년여의 짧은 목회를 마쳤다.

### 제3절 경산중앙교회 분립 및 경산제일교회의 설립

#### 1. 경산중앙교회의 분립

경산중앙교회의 분립에 대해서는 1948년(오태환 담임목사)부터 교회설립을 논의한바있다.<sup>171</sup> 1955년(최동진 담임목사) 학생회(회장 백충기)가 주관하여 중방동 전춘웅의 집 마당에서 십자가 구락부를 운영하여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소년소녀 약30명을 교육시키며 전도에 힘썼다. 그 후 당회 방침에 의하여 십자가 구락부를 재발족하여 중방동 확장주일학교로 개편하여 부장에 안건수를 임명하였다. 이 와중에 학생회장 백충기(경북대 의대생)는 권면하여 만류하였으나 대구제일교회로 이명을 갔다.<sup>172</sup> 교회에서는 천막을 구입하여<sup>173</sup> 천막에서 확장주일학교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추진위원으로 최재학, 강의덕, 정종환, 안건수, 신길순, 정주경, 권영희 7인

169 경산교회 당회, “제300회 당회록” (1960. 1. 3).

170 경산교회 당회, “제282회 당회록” (1959. 1. 4).

171 경산교회 제직회, “제227회 임시제직회록” (1948. 2. 29), 경산교회 제직회, “제229회 임시제직회록” (1948. 3. 21).

172 경산교회 당회, “제236회 당회록” (1955. 6. 16).

173 경산교회 제직회, “제309회 정기제직회록” (1955. 6. 5).



을 선출하였다. 확장주일학교는 안건수 부장을 중심으로 천막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교회에서 중방동에 분립교회를 설립키로 가결하고 추진위원 10인으로 최재학, 안상기, 강의덕, 김영훈, 안건수, 한시은, 신길순, 최일조, 권영희, 박분남을 선출하였다.<sup>174</sup> 또한 부흥 사경회(강사 김두영 목사)중에 중방동 설립기금으로 200만원을 예산하여 보조키로 가결하였다.<sup>175</sup>

권신찬 목사 목회 때인 1959년 8월에 정덕조 외 7인이 당회에 대하여 교회분립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당회에서 허락키로 하고 재정에 관하여는 제직회에서 수의키로 하였다.<sup>176</sup> 아울러 중방동교회 분립추진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교회 측 신길순, 엄재권, 허 영
- 분립 측 한시은, 김명섭, 권영희(여)

드디어 1959년 8월 9일에 개최된 임시제직회(임시회장 황규석 목사)에서 중방동교회 설립위원을 5인으로 정하고 인선은 권신찬 담임목사에게 일임하였다. 본격적으로 교회설립이 추진됨을 볼 수 있다. 추진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1959년 8월 9일에 개최된 임시제직회록(임시회장 황규석 목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결의함을 볼 수 있다.

- 1. 중방동교회 분립기금조로 일금 일백만원정을 연보해주기로 가결하다.
- 1. 분립청원서 요구조건에 의하여 강대상과 풍금 1대를 주기로 가결하다.
- 1. 기타비품은 쌍방의 대표를 당회에서 선정하여 적절히 분배하기로 가결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디어 1959년 9월 14일에 경산교회에서 분립하여 경산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 경산교회가 설립된지 50

174 경산교회 제직회, “제316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56. 1. 15).

175 경산교회 제직회, “제316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 (1956. 1. 29).

176 경산교회 당회, “제292회 당회록” (1959. 8. 8).



2009년 11월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경산중앙교회

년(희년)만에 정식으로 분립시킨 교회는 경산중앙교회가 처음이다.

## 2. 경산제일교회의 설립

경산제일교회설립에 대하여 당회록이나 제직회록에서 특별한 기록을 볼 수 없다. 다만 경산 애육원이 선교부의 후원을 받는 고아원으로서 그 기관에 근무하는 이영찬 집사(후에 장로)를 위시하여 남녀 몇 사람이 제일교회를 설립하였다. 경산교회에서 주일학교, 청년회장 등으로 많이 수고한 허영 집사(후에 장로)도 옮겨갔다. 1960년 8월 4일 개최된 제305회 당회록(임시회장 박봉숙 목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허영집사의 서리집사직과 유년주일학교 부장직을 자원에 의하여 사면받기로 가결하다.」

이로 보건데 경산제일교회 설립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임하고 후일 그 교회장로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찬 집사는 애육원 총무로서 1960년도 제직회 서기를 맡고 1960년 7월 17일에 개최된 제직회록에 서기로 되어있으나 1960년 8월 7일에 개최된 제366회 정기제직회록(회장 김찬명 목사)에는 특별한 기록 없이 임시서기 엄재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영찬 집사는 고향이 이북으로 가족을 떠나 홀로 있으며 말이 적고 온화한 성격으로 주일학교 중등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 충성하였다. 경산제일교회는 1960년 8월 7일 설립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으로 되어있다.

이래서 경산교회 당회록 제4호 시대는 마감된다. 1955년 3월 6일 제 231회 당회(최동진 목사)부터 1960년 2월 28일 제301회 당회(권신찬 목사)까지이다. 제4호 당회록에는 김형식 목사시대부터 교회내부의 시련이 많은 시기였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교계에서는 장로교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교단의 분열 속에서도 경산교회는 든든히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산중앙교회분립과 경산제일교회설립의 직전까지이다. 이제부터는 경산교회 당회록 5호시대로 접어든다.

## 제4절 김찬명목사 목회

### 1. 김찬명목사 목회



김찬명 목사

김찬명 목사는 부산 해운대교회에서 시무 하던 중 권신찬 목사 후임으로 1960년 7월 17일 임시목사로 부임하였다.<sup>177</sup> 김찬명 목사는 약 2년 3개월의 짧은 기간을 임시목사로 시무하다가 1962년 11월 3일에 사임하게 된다.<sup>178</sup>

한편 이봉학 전도사가 1959년 6월 12일 사임한 후<sup>179</sup> 공석에 있던 남 전도사에 정주경 전도사를 당회에서 결정하였다.<sup>180</sup> 정주경 전도사는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시무한 바 있다.

177 경산교회 제직회, “제364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60. 6. 22), 경산교회 당회, “제304회 당회록” (1960. 7. 16), 경산교회 제직회, “제35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60. 7. 17).

178 경산교회 제직회, “제393회 제1차 정기제직회록” (1962. 11. 4).

179 경산교회 당회, “제288회 당회록” (1959. 6. 12).

180 경산교회 당회, “제317회 당회록” (1961. 4. 9).



전임 이봉학 전도사와 같이 무보수 명예전도사이었다. 주로 제직회 기획부장을 맡아 교회의 전반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였다.<sup>181</sup> 1962년 6월 13일에 사임하였다.<sup>182</sup>

주성에 여전도사는 1958년 3월 14일에 부임하여 한때 어려움도 있었으나, 교회를 잘 섬기다가 1961년 3월 5일에 사임하였다.<sup>183</sup> 사임 후에도 평신도로 교회에 충성하다가 남편 박치룡 장로와 함께 1973년 3월 28일에 경기도 양평군 단원교회로 이명해 갔다. 주성에 전도사 후임으로 임복달 여전도사가 1961년 9월에 부임하였다.<sup>184</sup>

한편, 1961년 11월 9일에는 경산교회 제18대 신길순 장로 장립식이 있었다.<sup>185</sup> 신길순 장로는 그 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충성봉사 하였다. 경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바 있는 초량교회 최동진 목사는 신길순 장로 장립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어 장로장립을 축하했다.



신길순 장로

<축 사>

### 경산교회 신길순 장로장립

1. 주님위해 받는 고난 태산이오 하해이나  
 맑은짐이 무겁다고 너머지지 마시라오  
 피땀은손 임하시고 못박힌 흔적 나타나서  
 붓드시고 도우리니 이기고도 남으리라

181 경산교회 당회, “제327회 당회록” (1962. 1. 10).

182 경산교회 당회, “제333회 당회록” (1962. 6. 13).

183 경산교회 제직회, “제373회 정기제직회록” (1961. 3. 5).

184 경산교회 제직회, “제322회 정기제직회록” (1961. 9. 5).

185 경산교회 당회, “제322회 당회록” (1961. 10. 1).



2. 사막이나 가시밭이 슬픔이오 눈물이나  
 그대 걷는 발걸음이 머뭇거리 주저마오  
 창에허리 상하시고 물과피를 흘린주님  
 나타나서 도우리니 어찌라서 머뭇하리

3. 가정사리 괴로워도 원망말고 전진하오  
 사회일이 분주해도 낙담말고 나아가소  
 가시관을 쓰신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께영광 교회영광 길이길이 빛나리라

4 북한땅에 가라입은 붉은옷을 벗길이도  
 38선에 으름대는 붉은용을 몰아냄도  
 성직받는 신장로께 없다고도 못하겠소  
 힘쓸세라 신장로여 충성하여 이루시라

5 경산교회 빛내시고 경산지방 복받도록  
 대한나라 빛내시고 백의민족 복받도록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가지처럼  
 신장로여 높이솟고 길순씨여 넓이퍼져  
 복의기관 되여지오 복의기관 되여지오

1961년 11월 9일 부산초량교회 목사 최동진

박치용 장로는 앞서 부임한 부인인 주성애 여전도사를 따라 온가족이 서울에서 1958년 12월 20일 경산교회로 이명해온 후 1960년 9월 18일 개최된 제307회 당회에서 경산교회 협동장로로 추대되었다.

또한,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여온 강의덕 장로는 1961년 12월 17일 시

무를 사임하였다. 아울러 경산교회에서는 협동장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sup>186</sup>

한편, 1962년 5월 30일에 경산교회 19번째 장로인 안건수 장로 장립식이 있었다. 장립식에 대한 기록 및 순서 등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sup>187</sup>

이무렵 교회에서는 교패를 500개 만들어 각 가정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는 ‘교인 인식표’라 하였다.<sup>188</sup> 경산교회에서 교패를 만들어 교인들의 집문 앞에 달기는 처음인 것이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50주년 기념행사준비로 경산교회 부담경비 400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다.<sup>189</sup> 또한 교회 내 전기시설을 형광등으로 교체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sup>190</sup>

5월에는 야외예배로 온 교인이 대자연에서 예배드리고 교인 간에 친교를 나누었다.<sup>191</sup>

## 제5절 장로교 분열과 경산교회

광복 후 국내 정세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과 동시에 사회에서도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요, 열강들의 대립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 수없이 많은 교파가 형성되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장로교회의 제1차 분열은 경남지방에서 신사참배로 오염된 교회를 정화

186 경산교회 당회, “제324회 당회록” (1961. 12. 17).

187 경산교회 당회, “제332회 당회록” (1962. 5 13).

188 경산교회 제직회, “제370회 정기제직회록” (1960. 12. 4).

189 경산교회 제직회, “제391회 정기제직회록” (1962. 9. 2).

190 경산교회 제직회, “제394회 정기제직회록” (1961. 4. 2).

191 경산교회 제직회, “제374회 정기제직회록” (1961. 4. 2).



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났다.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가 중심이 되어 정통주의 신학교를 설립하고 박윤선 목사가 교장으로 추대되어 고려신학교(고신대학교)가 출범하였다. 고신측이라 불리어진다. 제2차 분열은 자유주의 신학문제로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1953년에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조직하여 이탈해 나갔다. 기장측이라 한다. 제3차 분열은 1959년이였다. WCC 문제와 경기노회 총대권 문제 등 여러 가지이유로 승동측과 연동측(통합)으로 각각총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장로교회의 합동운동으로 우선 가능한 편부터의 합동이 전개되어 마침내 예장 승동측과 고신측이 신학주장, 대외관계가 같으므로 1960년 12월에 합동하여 이른바 합동측이 형성된다. 그러나 1962년 고신측이 환원하여 다시 고신총회를 재조직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장로교회는 다시 4개의 교단으로 분리되어 합동교단은 총회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신교단은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교단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장측은 한국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각각 신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분열의 중심에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네 사람의 지도자 곧 박형룡(1897~1978), 한상동(1901~1976), 한경직(1902~2000), 김재준(1901~1987) 목사가 있었다. 경산교회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반목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옛날 설립당시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제6절 김기식목사 목회

### 1. 김기식목사 목회

김기식 목사는 김찬명 목사 후임으로 경북고등성경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1962년 12월 6일에 부임하였다.<sup>192</sup> 김기식 목사 부임까지 임시당회

192 경북노회, “제71회 경북노회록 제2차 임시노회록” (1962. 12. 28), 경산교회 당회, “제336회 당회록” (1962. 11. 23).



김기식 목사

장으로 김태운 목사가 수고하였다.

김기식 목사의 위임식은 1964년 4월 29일에 거행되었다.<sup>193</sup> 이로서 경산교회 제11대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위임식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① 교역자 동정

임복달 여전도사 후임으로 반야월교회에서 시무하던 조차남 여전도사가 1965년 3월에 부임하여 1967년 12월 17일까지 시무하였다.<sup>194</sup> 공석중인 남전도사 후임으로 이원상 전도사가 1966년 1월 30일에 부임하여 1968년 6월 도미유학을 위해 사임하였다.<sup>195</sup> 이원상 전도사는 경산교회 이성봉 장로의 아들로써 미국에 건너가서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26년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한 후 지금은 씨드 해외선교회 (Seed International Mission)와 에스라 지도자 연구원 (Ezra Leadership Institute) 대표로 일하고 있다.

조차남 여전도사 후임으로 유위정 여전도사가 1968년 6월에 부임하여 1969년 10월에 사임하고 대구문화교회로 전출하였다.<sup>196</sup> 유위정 여전도사 후임으로 김창덕 여전도사가 1969년 10월에 부임하여 1971년 9월에 사임하였다.

1969년 4월에 김주철 전도사가 부임하여 1970년 9월 9일에 사임하고 영

193 경산교회 제직회, “제40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64. 4. 5).

194 경산교회 당회, “제362회 당회록” (1965. 2. 28), 경산교회 당회, “제397회 당회록” (1967. 12. 17).

195 경산교회 당회, “제374회 당회록” (1966. 1. 30), 경산교회 당회, “제402회 당회록” (1968. 6. 9).

196 경산교회 당회, “제402회 당회록” (1968. 6. 9), 경산교회 당회, “제402회 당회록” (1968. 6. 9).

천대창교회를 개척하였다.<sup>197</sup> 경산교회에서 재정을 보조함을 볼 수 있다.<sup>198</sup>

## ② 당회동정

1962년 5월 30일에 장로장립을 받은 안건수 장로는 1964년 12월 20일에 사임하였고, 1973년 9월 30일에는 대구남영교회로 이명 하였다. 안건수 장로는 경산교회의 오랜 교인으로서 경산유치원이 1954년 4월 개원할 당시부터 다년간 원감을 맡아 수고하였고 1961년 4월부터 1964년 2월 까지 원장을 맡아 수고하였다. 또한 백천 확장주일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크게 수고하여 건축전후 부장직을 맡아 충성하였다.

한편, 경산시 남산면 경동교회에서 1963년 2월 17일에 경산교회로 이명 온 양해술 장로는 1963년 5월 19일에 취임식을 하고 시무장로가 되었다.<sup>199</sup> 그 후 사정에 의하여 1969년 1월 1일에 사임하게 된다. 그리고 1974년 6월 30일 재취임 하였다. 양해술 장로(1909년생)는 연로하셔서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회에서 극구 말렸으나 굳이 사양함으로 1989년 8월 27일 사임하였다. 당시에는 정년은퇴제도가 없을 때였다.

또한, 1958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이명 온 박치룡 장로는 그동안 협동장로로 수고하여 오던바



양해술 장로



박치룡 장로



전성문 장로

197 경산교회 당회, “제414회 정기제직회록” (1969. 3. 23), 경산교회 당회, “제432회 당회록” (1970. 9. 9).

198 경산교회 당회, “제425회 당회록” (1974. 2. 3).

199 경산교회 당회, “제342회 당회록” (1963. 4. 28).

1963년 5월 19일 시무장로로 취임하였다. 박치용 장로는 서울에서 금융 기관에 근무한 경력으로 경산교회 재정부 회계업무에 힘썼다.

1970년 4월 28일 경산교회 제18대 22번째 장로인 전성문 장로장립식이 거행되었다. 전성문 장로는 이후 교회 회계 및 재정부장으로 오래 수고하였고 초대 선교회 회장 등 많은 봉사를 하다가 1998년 11월 27일 정년 은퇴와 함께 경산교회 첫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 ③ 교회묘지

교회묘지조성을 1956년부터 추진하였던바 당시에 조성한 묘지가 부적절하여 매각하고 얻은 대금 1만원을 교회에서 구입한 마이크 대금으로 지불하였다.<sup>200</sup> 다시 교회용 공동묘지를 3만원에 구입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묘지대금의 부족액을 모금하여 관리인을 세우는 등 교회묘지를 조성하였다.<sup>201</sup>

### ④ 교육위원회 및 주일학교

1968년 1월부터 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각부 부장을 구성하였다. 교육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기식(담임목사, 주교교장)

위 원 곽도영(유년부장)

신길순(소년부장)

이원상(고등부장)

1968년 6월 이원상이 도미후는 정주창이 1972년 4월까지 고등부장을 담당하였다.

이성봉(장년부장)

200 경산교회 제직회, “제417회 제직회록” (1965. 1. 3).

201 경산교회 제직회, “제418회 제직회록” (1965. 2. 7), 경산교회 당회, “제363회 당회록”, 경산교회 제직회, “제419회 제직회록”(1965. 3. 7), 경산교회 제직회, “제419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65. 3. 14), 경산교회 제직회, “제420회 제직회록”(1965. 4. 4).



이로서 각 교육부서가 유기적으로 연락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sup>202</sup>

한편 미래의 이 나라와 교회의 일꾼인 청년 및 대학생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주일학교 대학부(현재 청년대학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1970년부터 운영키로 하였다. 초대 대학부장에 정주경을 임명하였다.<sup>203</sup>

1970년 주일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유치부장 신길순, 강종련

유년부장 송석근

소년부장 신동욱

고등부장 정주창

대학부장 정주경

장년부장 박치룡

#### ⑤ 교회도서부

교인들의 지적향상과, 특히 주일학교 및 학생들에게 영적 양식을 위하여 교회 도서부를 두기로 하고 초대부장에 신길순 장로를 임명하였다.<sup>204</sup>

#### ⑥ 경산신용협동조합 조직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모여 풍돈을 계속적으로 저축하고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는 저리로 대부를 받는 비영리적인 협동조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되었다. 초대 이사장에 정주경, 제2대 이사장에 이원상이 맡았으나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202 경산교회 당회, “제411회 당회록” (1969. 2. 9).

203 경산교회 당회, “제422회 당회속회록” (1969. 12. 21) 경산교회 당회, “제437회 당회록” (1970. 12. 31).

204 경산교회 당회, “제411회 당회록” (1969. 2. 9).



⑦ 백천동 확장주일학교

남전도회에서 백천동에 확장주일학교를 설치하여 어린이 전도운동을 하고자 결의하고 답사위원으로 신길순, 최일조, 정주경, 송석근을 선출하여 답사한 후 드디어 1973년 1월 31일에 개회예배를 드리므로 백천동에 확장주일학교가 개설되었다. 백천동의 나지막한 초가집 방을 한 달에 500환으로 세를 얻었다.

초대부장에 정주경이 맡아 초창기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기초를 세운 후 조기사임하고 후임으로 송석근, 김상수로 이어져 내적충실을 기하였으며 그 후 최일조, 김상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안근수 장로는 숙부인 안태인 장로에게 건의하여 백천동 안태인 장로 소유의 땅에 안태인의 후원금으



백천동 확장주일학교 개학예배를 마치고 (1971. 1. 31)



로 확장주일학교 건물을 건축하여 기증하였다. 당시의 확장주일학교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1975년에 이르러 확장주일학교가 기도소로 발전하였고 기도소가 백천교회(현재 새소망교회)로 까지 발전하기에 이른다.

제28회 경청노회(1976. 3. 10)에서,

「경산읍교회에서 분립한 백천교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는 결의를 보게 되어 확장주일학교를 개설한지 약 5년여 만에 백천교회가 설립되었다. 백천교회는 그 후 새소망교회로 개명하였다.

#### ⑧ 교회의자 설치

교회에 의자를 설치키로 하고 1971년 5월 2일에 개최된 제429회 제직회에서 추진위원 4명을 선정키로 가결하고 전성문, 강한수, 정주경, 신동욱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찬양대원을 제외한 일반교인은 마루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으나 이 무렵부터 현재와 같이 일반교인들도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⑨ 전화기 가설

경산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교회용 전화기를 1대 가설키로 하였다. 전화기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67년 하반기에 가설되었으리라 짐작된다.<sup>205</sup>

#### ⑩ 부활주일 새벽촛불예배

암흑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주일(4월 14일) 새벽예배를 경산교회에서 분립한 경산중앙교회와 연합하여 성암산에서 경산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연합예배를 드리며 부

205 경산교회 제직회, “제445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67. 6. 25).

206 경산교회 당회, “제400회 당회록”(1964. 4. 6).

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sup>206</sup> 이 촛불예배는 1970년과 1971년에도 이어졌다.

⑪ 학생회 음악발표회

경산교회 학생들이 임마누엘 합창단을 조직하여 활동 중 방학을 맞아 조국광복을 기념하여 1971년 8월 14일 밤에 광복축하 제4회 임마누엘 발표회를 경산경보극장에서 가졌다. 교인들과 일반청중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이날 지휘는 김기식 담임목사의 장남 김종학이 반주는 차남인 김종국이 맡았다. 김종학은 후일 목사가 되어 목회활동중이다.



광복축하 제4회 임마누엘 발표회(1971. 8. 14)

⑫ 김기식 목사 일본 세이신(聖心)교회 강사로 초청받다.

김기식 목사는 1966년 5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일본 오카야마시에 있는 세이신(聖心)교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복음을 전하며 발달된 히카리(光) 유치원을 시찰하는 등 일본을 여행하였다.

김기식 목사는 말기에 가서 시련이 있었다. 진정서, 연판장 및 고소장 등과 관련된 당회 및 제직회가 9회 개최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김기식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갈등과 시련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대처하며<sup>207</sup> 1971년 9월 15일 사임하고<sup>208</sup> 경남충무교회로 전임하였다.



김기식 목사 송별기념(1971. 10)

## 2. 경산교회 경청노회 가입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7회 총회(1962. 9. 20~9. 24 서울 승동교회)에서 경북노회를 분립하여 경청노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62년 10월 22일 경산 압량면 부적1리 237번지에 소재한 압량제일교회(현재 은혜로교회)에서 경청노회가 창립되었다.

207 경산교회 당회, “제381회 당회록”(1966. 9. 11), 경산교회 당회, “제432회 당회록”(1970. 9. 9), 경산교회 당회, “제433회 당회록”(1970. 9. 19), 경산교회 당회, “제440회 당회록”(1971. 3. 14), 경산교회 제직회, “제466회 제직회록”(1969. 3. 1).

208 경산교회 당회, “제445회 당회록”(1971. 9. 15).

경산교회에서는 경청노회가입에 대해서 1961년 11월 19일 개최된 제 381회 제3차 임시제직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경북노회를 탈퇴하고 경청노회 가입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하기로 가결하고 투표한 결과 가 13표, 부 6표, 백표 1표, 기권 1표로서 경청노회 가입의 결정을 보다」

이로서 경청노회에 가입키로 결정하였으나 1961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381회 제4차 임시제직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전번 결의를 반복하였다.

「제3차 임시제직회시 가결하여(무기명표결) 경청노회 가입된 문제를 재론키로 만장일치 거수가결을 보는 동시 그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불승인임으로 가입취소의 원만한 가결을 보다」

총회분립결의 이전으로 가입을 취소한 것이다. 그 후 제391회 제직회록(1962. 9. 2)에 의하면 여전히 경북노회원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9월 4일 경북노회 총대여비와 신학교를 위한 헌금은 회계와 상의하여 지참토록 합의를 본 후 폐회키로…」

그사이 경청노회는 1962년 10월 22일 압량제일교회당(현재 은혜로교회)에서 창립되었다.

이상(以上)이 김찬명 목사 재임 중의 일이다. 김찬명 목사가 떠나고(1962. 11. 3) 김기식 목사가 부임(1962. 12. 6)한 후 1963년 2월 17일에 개최된 제339회 당회에서 경북노회 총대를 교체함을 볼 수 있다. 더욱이 1963년 10월 20일에 개최된 당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 전권위원이 현지답사에 제하여 본 교회는 경북노회에 그대로 존속키로 가결하다.(가 4표, 부 2표, 기권 1표)」

경산교회가 경청노회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경북노회에 속함을 볼 수 있다. 제352회 당회록(1964. 2. 23)에서도 경북노회에 총대를 파송한 기록을 볼 수 있다. 경청노회가입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



으나 1964년 12월 4일에 개최된 경청노회 제5회 1차 임시회록에 의하면 개최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서기 발언이 기록되어있다.

「지난 제49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본 노회로 들어온 경산읍교회와 갑제교회를 박수로 환영하고 들어온 교회를 대표하여 김기식 목사의 인사말이 유하다.」

따라서 경산교회의 경청노회가입은 1964년 12월 4일이다. 그 후 1965년 3월 16일 개최된 제6회 경청노회는 경산교회당에서 개최되었고 경산교회 김기식 담임목사가 경산교회 출신 첫 경청노회장으로 취임하였다.

### 제 3 장 이만천목사 목회와 교회의 신장

#### 제1절 이만천목사 부임 및 교역자 동정



이만천 목사

##### 1. 이만천목사 부임

김기식 목사 후임으로 진주교회에서 시무하던 이만천 목사가 1971년 11월 6일에 경산교회로 부임하였다.<sup>209</sup> 이만천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사월교회 최태원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수고 하였다.

이만천 목사는 1972년 3월 24일(금)에 위임식이 거행되어 경산교회 제12대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sup>210</sup> 위임식에 관한 다른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만천 목사 위임기념(1972. 3. 24)

209 경산교회 당회, “제448회 당회록” (1971. 10. 10), 경청노회, “경청노회 제9회 당회록” (1971. 11. 6), 경청노회, “19회 제1차 임시노회록” (1971. 11. 6).

210 경산교회 당회, “제454회 당회록” (1972. 1. 26), 경산교회 제직회, “제502회 임시제직회록” (1972. 3. 12).



## 2. 교역자 동정

김주철 전도사 후임으로 조정남 전도사가 1972년 4월 1일 부임하여 1976년 10월 15일 까지 시무하다가<sup>211</sup> 고현교회(경북 의성군 금성면)로 전출하였다.

조정남 전도사 후임으로 박인표 전도사가 1977년 2월 16일 부임하여 1979년 1월 5일 까지 시무하고 육동교회로 전출하였다.

남영섭 전도사가 1979년 1월에 박인표 전도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1980년 1월 16일에 대구성지교회로 전출하였다.

김석진 전도사가 1980년 2월에 남영섭 전도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시무중 강도사 인허를 받고 1981년 8월 30일 가일교회(현재 압량동부교회)로 전출하였다.

홍승철 전도사가 1983년 1월에 김석진 강도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1984년 5월 24일에 청송화목제일교회 담임 교역자로 전임하였다.

김한봉 전도사가 1984년 8월 5일 홍승철 전도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시무중 강도사 인허 및 목사장립을 받고 부목사로 시무하다 1986년 10월 8일 부산부전교회로 전임하였다.

한제동 여전도사가 1974년 4월에 부임하여 1982년 12월 28일에 사임하였다. 1976년 10월 3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는 휴무하였다.

윤혜숙 여전도사가 1982년 2월 4일에 한제동 여전도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1982년 11월 26일에 사임하였다. 후임으로 이영숙 여전도사가 1983년 2월 15일 부임하여 1989년 8월 27일에 사임하였다.

그동안 주일학교 각부를 담당할 교육전도사로서 신효철이 1981년 1월 4일에 경산교회 첫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1982년 12월에 사임하였다. 이후 이철성(1981. 11.~1982. 12), 최상호(1984. 1.~1987. 3.) 교육전도사가 시무하였다.

211 경산교회 당회, “제458회 당회록” (1972. 4. 1), 주보 제26권 제42호(1976. 10.17).



## 제2절 이만천목사 목회

### 1. 당회

박치룡 장로가정이 1973년 3월 28일에 사임하여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단원교회로 이명해 갔다.<sup>212</sup> 이성봉 장로는 1975년 8월 12일 별세하여 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렀다.<sup>213</sup> 장례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발인 일시	1975년 8월 14일 오전 8시 30분
발인 장소	경산군 경산읍 삼남동 111번지
영결식장소	당일 오전 9시 본교회당 뜰
장 지	경산군 압량면 평산동 경산교회묘지
집 례	이만천 목사
장의위원장	안상기 장로
호 상	정종환 장로
장의 부장	양해술 장로
섭외 부장	신길순 장로
재정 부장	전성문 장로

1969년 1월 1일 사임한 양해술 장로는 1974년 6월 30일 재취임 하였



배경학 장로



박종길 장로



방태호 장로



안문식 장로

212 경산교회 당회, “제476회 당회속회록” (1973. 3. 28), 경산교회 당회, “제483회 당회록” (1973. 9. 30).

213 경산교회 당회, “제513회 당회록” (1975. 8. 12).

다.<sup>214</sup> 한편 배경학과 박종길이 1977년 4월 26일 제20대 장로로 취임하였고 방태호 안문식이 1979년 5월 24일 경산교회 제21대 장로로 취임하였다. 또한 이정우는 청천교회에서 1985년 3월 10일에 이명와서 1985년 4월 26일에 협동장로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정종환 장로는 1983년 2월 23일에 신길순 장로는 1984년 7월 17일에 별세하였다.

## 2. 장립집사와 권사

송석근과 허남형은 1979년 5월 24일에 경산교회 세 번째 장립집사로 취임하였다. 경산교회 장립집사가 1940년 9월 15일에 선출된 후 약 39년 만의 일이다.<sup>215</sup>



방태호, 안문식, 허남형, 송석근(좌로부터) 장로, 집사 장립식(1979. 5. 24)

경산교회 첫 번째 권사로 백귀복, 김홍인, 김봉희가 1979년 5월 24일에 취임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권사는 당회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나

214 경산교회 당회, “제498회 당회록” (1974. 6. 21).

215 경산교회 당회, “제555회 정기당회록” (1979. 2. 25), 경산교회 당회, “제555회 제1차 임시당회록” (1979. 4. 1).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산교회 첫 권사는 신앙연조가 오래된 사람으로 여러 면으로 봉사하였다. 김홍인 권사는 1982년 7월 5일, 백귀복 권사는 1985년 1월에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백귀복 권사



김홍인 권사



김봉희 권사

### 3. 교회표어

경산교회는 1940년에 처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자”(빌 3:14)로 표어를 정한 후 32년 만에 이만천 목사가 부임 후 표어를 정하였다. 이만천 목사가 정한 표어는 다음과 같다.

- 1976년 넓게 길게 견고하게 (이사야 54:2)
- 1977년 알찬 신앙생활 (누가 17:5)
- 1978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고전 16:13)
- 1979년 모이기를 힘쓰자
- 1980년 거룩한 생활
- 1983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자
- 1984년 신령한 생활
- 1985년 바른 신앙생활 (디도서 1:9)
- 1986년 더 새롭게

표어를 통하여 온 교회가 단합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리므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 4. 찬양대

이만천 목사가 부임한 1971년 찬양대는 대장에 안성근, 반주는 강두숙, 지휘는 대장이 겸임한 듯 하다. 종래부터 해오던 찬양대외에 교세의 확장에 따라 제2찬양대, 제3찬양대가 조직되었다. 제1찬양대를 할렐루야, 제2찬양대를 호산나, 제3찬양대를 실로암이라 호칭키로 하였다. 경산교회 찬양대가 1940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였고, 1978년부터는 제2찬양대 및 제3찬양대를 새롭게 조직하여 밤예배시에도 찬양을 드렸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찬양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특히 전효숙은 7년간, 전승숙은 6년 9개월을 반주자로 수고하였다. 그 외 강두숙, 이지숙, 강영분, 안정애, 이성애, 이정숙 등이 반주자로 수고하였다.

#### 5. 주일학교

이만천 목사가 부임한 다음해인 1972년도 주일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유치 부장 이민자
- 유년 부장 양종필
- 초등 부장 송석근
- 소년 부장 신동욱
- 고등 부장 정주창
- 대학 부장 정주경
- 장년 부장 이성봉
- 백천동 확장주일학교 부장 김상수

백천동 확장주일학교는 안근수 장로의 숙부인 서울 안태인 장로 소유의 대지를 경산교회에 헌납하고 역시 안태인 장로의 후원금으로 주일학교 건물을 지어 확장주일학교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후 1975년 7월 13일에는 백천동 기도소로 발전하였으며<sup>216</sup> 1975년 12월 21일부터는 백천동기도소가 백천

개척교회로(현재 새소망교회) 발전하였다.<sup>217</sup> 경산교회에서 백천개척교회 분리청원을 제28회 경청노회에 청원키로 하였던바<sup>218</sup> 1976년 3월 9일에 경산교회에 회집된 경청노회 제28회 정기회(회장 이만천 목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다.

「경산읍교회에 분리한 백천교회 분리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그디어 1973년 1월 31일에 설립된 경산교회 백천동 확장주일학교가 약 3년 1개월 만에 교회로 발전하여 설립이 되었다. 일찍이 중방동 확장주일학교 및 백천동 확장주일학교를 세워 경산중앙교회와 경산남부교회를 세워 복음확장을 도모한 경산교회에서는 다시 사정동에 확장주일학교를 세워 거리가 먼 사정동 일대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복음사역을 시작하였다. 초대부장에는 이문수 집사(후에 장로)가 담당하였다.

한편, 교회명칭을 다시 경산읍교회에서 1978년 9월 5일부터 경산교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19</sup> 참고로 1989년 경산읍이 시로 승격되었다.

## 6. 70주년 기념예배

1979년은 경산교회 설립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79년 5월 24일 11시에 70주년기념예배와 아울러 장로 집사 장립, 권사 취임식이 이루어졌다. 기념예배식순은 다음과 같다.

216 경산교회 당회, “제512회 당회록” (1975. 6. 29).

217 경산교회 당회, “제518회 당회록” (1975. 12. 21).

218 경산교회 당회, “제502회 당회록” (1976. 2. 29).

219 경청노회, “경청노회 제33회 정기노회록”(1978. 9. 5).



## <경산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예배>

사회 당회장 이만천목사

### <예 배>

목 도	(시편 100편 낭독)	일 동
기 원		사 회 자
찬 송	30	일 동
기 도		이봉학 목사
성경봉독	계시록 3:7~13	전성학 목사
찬 양		성 가 대
설 교	축복받은 교회	김수학 목사
기 도		설 교 자
연혁보고		제13페이지

### <임 직>

서 약	1. 장로 집사 권사에게	
	2. 교우들에게	
안 수	장로집사에게	
안수기도		당 회 장
안수례		안수위원
취임기도	권사취임을 위하여	당 회 장
공 포	당 회 장	
권 면	1. 임직 받는 분들에게	우병국 목사
	2. 교우들에게	한인수 목사

**<축 하>**

기념가 합창	70주년 기념의 노래	일 동
기념품 증정		제8페이지
축 사		내 빈 중
축 송		본교회 청년
답 사		임직자 대표
인사 및 광고		안상기 장로
찬 송	618	일 동
축 도		(노회장) 김현준 목사
폐 식		송 영

**<성도의 교제>**

**<사 진 촬 영 >**

한편, 이날 근속 표창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 졌는데 표창을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① 20년 이상 재직한 장로에게 기념패수여  
안상기, 정종환
- ② 15년 이상 근속한 서리집사에게 표창장 수여  
방태호, 안문식, 송석근, 서도향, 이위분, 이예교, 김홍인
- ③ 15년 이상 근속한 주일학교 교사에게 표창장수여  
신길순, 방태호, 송석근



기념패 받는 안상기 장로와 이만권 목사(1979. 5. 24)



### 7. 삼대 목표 주제가

이만천 목사는 1973년에 이르러 3대 목표 주제를 만들어 온 교인에게 부르게 하여 교인들의 사기를 양양함과 동시에 목표달성에 힘썼다. 이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던바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주경

위원 안성근, 신동욱, 강경구(찬양대 지휘자)

심사결과 채택한 가사와 곡은 다음과 같다.

#### <삼대목표 주제가>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상고 할 때에 영생하리라

2.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 나누며

초대교회 본받아 부흥하리라

3. 지상명령 따라서 선교하면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리라

(후렴) 경산교회 교우들 함께 일어나

삼대목표 이루러 달려갑시다.

(새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땅에’ 곡으로)

### 8. 회계법칙

교회 회계 한사람이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록을 혼자서 맡아 처리하던 것을 1972년 6월 4일에 개최한 제505회 제직회에서 회계법칙으로 돌아가 7월부터 문서회계와 출납회계로 구분처리하기로 하고 출납회계는 현금을 받드시 은행에 예금기로 가결하였다. 또한 문서회계의 전표에 의해서만 출납회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의 방식과 달라서 다소의 저항이 있었



으나 이만천 목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였다. 회계법칙 대로 하자는 제안자 정주경을 첫 문서회계로 선정했다.

### 9. 여전도회 분리

교세확장에 따라 여전도회의 분리청원을 받아들여 분리기로 하였다.<sup>220</sup>

### 10. 독립기념관 건립보조

독립기념관 건립성금 10만원을 경상비에서 지출하여 독립기념관 건립에 협력하여 후손들에게 국가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 11. 계 해산

교회내의 모든 종류의 ‘계’를 1984년 12월 말까지 해체할 것을 당회에서 명령기로 가결하여 교인 상호간 친선을 저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sup>221</sup>

### 12. 기타

이만천 목사 목회 시 전도방법은 축호전도를 통해서 경산시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를 하였다. 전도 후 그 집을 나오면서 대문한쪽에 분필로 +를 그려 이미 전도한 집이라는 표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경산의 모든 집이 +표시로 가득한 듯하였다. 1976년 무렵 주일 낮 평균 출석교인수가 265명 정도 되었고 1986년 무렵에는 평균 출석교인수가 약 350명이 되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청년회주최 교회후원으로 경로잔치가 열려 65세 이상의 교인을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선물도 전달하였다.

또한 평산동에 있는 경산교회 묘지를 1976년 4월 5일 식목일에 온 교인이

220 경산교회 당회, “제601회 제2차 임시당회록” (1986. 11. 23).

221 경산교회 당회, “제589회 당회록” (1984. 10. 28).

합심하여 정비작업을 하였다. 198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묘지 진입로를 보수정비 하였다. 또한 묘지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하였다.<sup>222</sup>

경산교회 유치원장 이만천 목사와 다년간 회계 및 원감을 맡아 헌신적으로 수고한 신길순 장로는 대한민국 국제문화협회 사회교육문화상 중앙심의회 안호상 총재로부터 1981년 3월 31일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상장을 수상하였다.



한편, 1973년 3월 4일 제반시설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될 시설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위원장에 이만천 담임목사가 담당하고 그 외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다.<sup>223</sup>

### 제3절 교회시설 및 부동산 확충

#### 1. 교회 증축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예배당을 확장기로 하였다. 강단뒤편 화강석 벽을 헐고 넓히기로 한 것이다. 화강석 벽을 허물기가 어려우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약 3.3m<sup>2</sup>(10평)가량을 넓혀 좌석을 그만큼 확보하였다. 이 일을 위하여 1975년 7월 13일 주일에 제직들이 먼저 헌금을 하고 7월 20일에는 전교인이 헌금기로 하였다.<sup>224</sup> 공사는 박달현 집사에게 맡기기로 하였다.<sup>225</sup> 공사에 따른 제반서류 회계보고 등 별도의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

222 경산교회 당회, “제588회 정기당회록” (1984. 8. 26), “제588회 제1차 임시회록” (1984.9. 7).

223 경산교회 제직회, “제414회 정기제직회록” (1973. 3. 4).

224 경산교회 제직회 “제442회 정기제직회록” (1975. 7. 6).

225 경산교회 제직회, “제438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75. 3. 30).

## 2. 목사사택 건축

이때까지 사용해온 담임목사 사택은 교회구내 전통식 한옥인 ㄱ자형 주택으로 재래식 부엌, 세면장은 방 앞마당의 우물 옆 그리고 별도의 건물인 재래식 화장실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새로 짓게 된 사택은 문화주택으로 편리하게 하였고 장차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하였다. 공사를 1976년 10월 상순에 시작하였으나<sup>226</sup> 언제 마쳤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 3. 교육관 건축

1979년 7월 1일에 개최한 제직회에서,  
「교육관 40평 건립키로 가결하였다. 7월 하순경에 공사가 시작되어…」<sup>227</sup>  
라는 기록이 있으며, 1차 준공예배는 1979년 11월 11일 11시에 드리는 낮 예배 후 교육관에서 드려졌다. 이만천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린 준공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228</sup>

찬 송	42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 도	안상기 장로
성 경	느헤미야 12:31~34
설 교	이만천 목사

2차 건축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된 문건을 발견할 수 없다.

## 4. 수호실 건축

교회정문 옆의 수호실(현재 관리집사 사택)이 오래되고 낡아 새로 짓기로 하였다. 1976년 6월 6일에 개최된 제453회 정기제직회에서 수호실 건축문

226 경산교회 제직회, “제454회 제직회록” (1976. 7. 4), 주보 제26권 제41호(1976. 10. 10).

227 주보 제29권 제29호(1979. 7. 22).

228 주보 제29권 제45호(1979. 11. 11).



신축된 관리집사사택

제는 시설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sup>229</sup> 약 63㎡(19평) 면적으로 건축되어 관리집사 사택과 여전도사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 5. 부동산 확장

### ① 국유지 불하

국유지로 있었던 경산시 삼북동 258-9번지 소재 대지220㎡를 1985년 2월 11일자로 불하받아 경산교회 소유로 이전등기 하였다. 대표자는 당회장 이만천 목사가 되었다.<sup>230</sup>

### ② 대지매입

교회 옆 삼북동 81번지의 62평 가옥을 750만원으로 구입하였다.<sup>231</sup> 이무렵 경산교회 주변의 국유지를 불하받기도 하고 교회 옆의 집을 매입하기도 하여 점차 교회대지를 넓혀갔다.

## 6. 기타시설 확충

① 교회정문을 철대문으로 제작키로 하고 재정부와 안문식 집사에게 일임키로 하고 스테인리스 롤게이트를 만들어 달게 되었다.<sup>232</sup>

② 교회 내 전화기를 한 대 더 설치키로 하였다. 196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교회전화기 1대가 설치된 후 약 12년 만에 전화기를 더 설치키로 한

229 경산교회 제직회, “제453회 제직회록” (1976. 6. 6).

230 경산교회 당회, “제590회 제2차 임시당회록” (1985. 2. 17).

231 경산교회 제직회, “제524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85. 12. 1).

232 경산교회 제직회, “제472회 정기제직회록” (1978. 1. 1).

것이다.<sup>233</sup>

- ③ 교회음향장치를 한 성도가 첫 봉급을 드려서 설치하게 되었다.<sup>234</sup>
- ④ 창문에 모기장 설치<sup>235</sup> 그리고 교회내 인터폰 설치도 이 무렵이었다. 이 일을 송정일, 배순환 집사에게 일임하도록 하였다.<sup>236</sup>
- ⑤ 자모실에 예배용 비디오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데리고 자모들이 비디오를 통하여 설교를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sup>237</sup>
- ⑥ 경산교회설립 후 처음으로 전자오르간을 구입하였다. 예배 시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여 예배분위기가 한층 장엄하였다.<sup>238</sup>
- ⑦ 그 외에도 자동차 구입, 전도용 메가폰 구입, 수전식 유전기 구입, 배터리형광등을 구입하여 정전시 강대상을 밝게 하도록 하였다.

1970년 1980년대 초에 여러 시설 및 공사를 통하여 교회문화시설 및 예배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하였다.

#### 제4절 선교사역의 시작과 선교회 조직

##### 1. 선교사역의 시작

125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지금은 방방곡곡에 교회가 우뚝서있다. 경산교회도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아담스 목사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경산교회는 복음의 빛을 갠기 위해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아시아 선교회 회원교회로 가입함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하였다. 아시아 선교회는 부산 초량교회 당회가 발기하여 1971년 5월 24

233 경산교회 제직회, “제492회 정기제직회록” (1980. 5. 4).

234 주보 제26권 제52호(1976. 12. 26).

235 경산교회 제직회, “제478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78. 7. 18).

236 경산교회 제직회, “제480회 제직회록” (1978. 9. 3).

237 경산교회 제직회, “제511회 정기제직회록” (1983. 7. 3).

238 경산교회 제직회, “제571회 제직회록” (1983. 9. 4). 237 초량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초량교회 100년사』 제일인쇄, 1994, 282.



일(월) 오후 2시 부산 적기(우암동)에 있는 성장기업 회의실에서 발기대회를 열었으며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sup>239</sup>

- 이사장 정태성 장로(초량교회)
- 회 장 최동진 목사(초량교회)
- 부회장 한병기 목사(부전교회)
- 이성헌 목사(대구서문교회)
- 김양순 장로(부전교회)
- 서 기 김정식 장로(초량교회)
- 회 계 정두수 장로(부전교회)

경산교회에서는 1973년 2월 10일 주일 밤예배시 1954년 1월 1일부터 1957년 9월 25일까지 경산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한바 있는 아시아 선교교회장 최동진 목사(부산초량교회 담임)의 설교 및 선교의 중요성의 역설 및 아시아 선교회 인쇄물의 배부 등이 있었다. 여기에 경산교회가 회원교회로 가입하여 간접적이거나 세계를 향한 첫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다. 최동진 목사는 다음날 2월 11일 기차 편으로 돌아갔다. 이만천 담임목사 외 여러 교인이 경산역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경산교회에서는 매월 5만원씩 단체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아시아선교회의 첫 사업인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힘을 보탰다.<sup>240</sup>

## 2. 선교회 조직

아시아 선교회가 얼마 후 초량교회 선교부에 흡수되므로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그 후 경산교회에서는 1982년 1월 24일에 개최한 제572회 제1차 임시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239 경산교회 제직회, “제453회 정기제직회록” (1976. 6. 6)

240 초량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초량교회 100년사』 제일인쇄, 1994, 283.

「본 교회에서 선교회를 조직하기로 가결하고 준비위원으로 이만천 신길순 전성문 정중환 제씨를 선임 가결하다.」

창립총회가 1982년 6월 20일 본당에서 이만천 담임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회칙을 제정하고 실행위원으로 송석근, 송정일, 양일용, 박해동, 소병준, 허남형, 신순길(당회원은 전원 포함)을 선출하였다.

1982년 6월 20일 오후 9시에 제1회 선교실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 장 전성문  
부 회 장 정중환, 신순길  
총 무 송석근  
서 기 양일용  
부 서 기 박해동  
회 계 송정일  
부 회 계 허남형  
감 사 신길순, 소병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드디어 경산교회 선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필요에 따라 선교금을 수시로 보조하였다. 그 후 대구 동신교회 펄리핀 선교후원회에 매월 일정액의 선교보조금을 지불함으로 선교사역에 이바지 하였다.



## 제5절 맺는말

이만천 목사는 가끔 부흥회 강사로 초빙 받아 집회인도를 하였다. 1974년 2월 10일부터 1975년 9월 10일까지 제25회, 제26회, 제27회 경청노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노회산하 교회를 자주 순회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다. 그때마다 안문식 장로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모시고 다녔다.

이만천 목사 목회시대(1971. 11. 6 ~ 1986. 6. 16)는 경산교회의 내적 충실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의 세심한 주의력과 관심, 또한 시설의 확충 및 충실한 설교로 교회의 전반적인 정비발전과 영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일어에 능통하여 설교준비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서의 권위』 등 번역도 하였다.<sup>241</sup>

이만천 목사는 1985년경에 병을 얻어 한때 쾌유한 듯하였으나, 1986년 6월 16일 56세로 별세하였다. 온 교인의 애도 속에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경청노회장으로 치루어졌으며 모든 주선과 수고를 경산교회가 담당하였다. 고인의 고향인 경북 고령 덕곡에 안장하였다. 담임목사가 시무 중 세상을 떠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경산교회 최장기 목회자로 14년 7개월 10일 시무하였다.

---

241 경산교회 제직회, “제527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 (1986. 6. 22).